

2022  
하반기  
동네문화추적단

# 하반기 동네문화추적단의 활동을 갈무리하며

이 보고서는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10개 팀이 10개의 주제로 동네문화추적단활동을 기록한 내용이다. 1팀은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팀은 활동 영역을 확정하고 활동 방법인 문헌조사 기법, 인터뷰 기법, 현장 답사 기법(사진 촬영 등)에 대한 기본 교육을 이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산문화도시센터와의 상담도 함께 이루어졌고 두 번의 전체 워크숍과 팀별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중간 보고회와 종합 발표회를 뒀다. 횡수가 거듭될 수록 추적단 활동의 내용이 알차지고 있어 긍정적이다.

하반기 동네문화추적단의 활동은 다음의 3가지 범주와 10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군산 시민 일상 생활문화 추적 활동이다. '구시장길 이야기'팀은 시대를 담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웹진을 만들었다. '아메리카 타운'팀은 현대사의 질곡을 지고 곧 사라질 아메리카타운의 마지막 모습을 사진과 인터뷰에 담았다. '미성동 이야기'팀은 주민들과 함께 사라진 마을의 기억지도를 만들었으며 '오룡동 이야기'팀은 주민들의 사진첩에서 사진을 모아 추억을 소환했다.

둘째는 군산 역사·문화 추적 활동이다. '군산 시인의 시선으로'팀은 시 속에 나오는 장소를 사진으로 찍고 주소를 찾아냈다. '군산에서 촬영된 영화 속 장소 찾기'팀은 영화 속에 나오는 장소를 찾아내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수면 설화'팀은 용 관련 설화를 모으고 고목제의 영상을 찾아냈다. '숫골 왕골 돛자리'팀의 고향 사랑은 지극해서 이미 사라진 돛자리 틀과 남아 있는 왕골 소품 등을 찾아내고 돛자리박물관을 만드는 꿈을 꾀다.

셋째는 군산의 생태 문화 추적 활동이다. '대야 구불길'팀은 네이버 지도에 편백 위치를 등록했고, 산책길을 지도도 그려놓았다. '개야도 역사 문화'팀은 개야도의 자연과 역사와 풍습까지도 자세히 기록으로 남겼다.

하반기 동네문화추적단원들은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바람직한 결과물이 도출되었다. 군산의 숨은 이야기들과 군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생태 자산이 발굴되고 기록되는 것은 군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가는데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 중요한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군산이 전 세계인과 공유하는 역사·문화·생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날까지 동네문화추적단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동네문화추적단을 지원하고 협력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도 감사드린다.

2022.12  
군산문화도시센터

# Contents

2022 하반기 동네문화추적단



# 2022 Gunsan City Culture



## I. 군산의 시민 일상생활 문화 추적 활동

- |             |    |
|-------------|----|
| 1. 구시장길 이야기 | 8  |
| 2. 아메리카 타운  | 19 |
| 3. 미성동 이야기  | 26 |
| 4. 오룡동 이야기  | 34 |

## II. 군산의 역사 문화 추적 활동

- |                        |    |
|------------------------|----|
| 1. 군산 시인의 시선으로         | 44 |
| 2. 군산에서 촬영된 영화 속 장소 찾기 | 57 |
| 3. 서수면의 설화             | 66 |
| 4. 솥골 왕골 돛자리           | 73 |

## III. 군산의 생태 문화 추적 활동

- |             |    |
|-------------|----|
| 1. 대야 구불길   | 82 |
| 2. 개야도 역사문화 | 89 |



# 2022 Gunsan City Culture

## I. 군산의 시민 일상생활 문화 추적 활동

1 구시장길 이야기

2 아메리카 타운

3 미성동 이야기

4 오룡동 이야기



# 1. 구시장길 이야기

## 개요

조사자	이판용 · 유선주	
조사 동기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구시장길 주민으로서 '구시장길을 지켜온, 번성했던 구시장길의 역사를 기억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li><li>구시장길이란? 2020 구도심 상권 이름 공모로 붙여진 이름</li><li>군산 구도심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스톱 콘텐츠로 제작 기록<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구시장길의 역사와 함께한 人</li><li>번성했던 구시장길을 기억하는 人</li><li>오랫동안 구시장길을 지켜온 人</li><li>구시장길의 추억을 이야기 해줄 人</li></ul></li></ul>	
활동 개요	컨설팅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li><li>문정현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li><li>문정현 전문위원과 전화상담</li></ul>
	현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일시 : 10월 10일</li><li>활동 : 희열쌀상회, 선덕양장, 세미사</li></ul>
	인터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일시 : 11월 14일, 16일,</li><li>활동 : 마을 주민 인터뷰(재보선창, 공설시장, 대동대장간, 호남기름집)</li></ul>
	문헌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일시: 8월 30일 ~ 1월 30일</li><li>시립도서관(군산 역사이야기, 군산, 구시장길, 노포이야기)</li></ul>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일시 : 8월 23일 ~ 12월 07일</li><li>활동보고서, 워크샵, 중간성과공유회, 최종성과공유회</li></ul>
	워크샵에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중간 발표 (10월 20일)</li><li>최종 발표 (12월 09일)</li></ul>

## 활동 과정

### ■ 1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19일
- 장소 : 사단법인 아리울역사문화
- 구시장길에 살았던 구시장길에 살고있는 주민들을 만나 현재를 중심으로 1900년대, 그 이전까지의 일상문화와 근현대사를 조명

- 형식 : 인터뷰 형식
- 인터뷰 자료와 함께 디지털 형식인 카드 뉴스로 제작
- 카드 뉴스는 조사자들의 SNS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화공유도시, 군산 '동네문화추적단'을 게시
- 군산문화도시센터가 하는 일들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기대
- 구시장길 SNS

이판용  
www.instagram.com/panistories  
https://blog.naver.com/panistories  
https://www.facebook.com /panyongi

유선주  
www.instagram.com/y\_sunju  
https://www.facebook.com/sunju.yu.1



### ■ 2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27일
- 장소 : 군산시 시립도서관
- 군산역사에 대한 문헌조사
  - 군산 시립도서관 군산관련 저서 검색
  - 「군산 역사 이야기」, 「군산」, 「구시장길」, 「노포 이야기」 등
- 인터넷 블로그, 기사 검색등을 통해 구시장길의 근현대사 검색
- 동네문화추적단 활동

- 사전 전화 인터뷰 진행 후 미팅
- 인터뷰를 웹진으로 제작

## ■ 1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0월 10일
- 장소 : 공설시장 내 희열쌀상회
- 대상 : 장정자(80세, 여), 주소 : 군산 공설시장



- 질문1. 군산에서 장사한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내가 시집을 23살에 와서 그때부터 시부모님께 물려받아 장사를 시작. 60여년동안 쌀집을 운영했어요. 내가 한 것만 60년이고, 시부모님이 계속해서 해 왔으니깐 장사한지는 80년이 넘었다고 봐야하죠.
- 질문2. 어떻게 구시장에서 쌀장사를 하게 되셨나요?  
시부모님이 이미 구시장에서 쌀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시집을 오니까 자연스럽게 아들이 우리도 부모님의 쌀장사를 돕기 시작했죠. 그때는 쌀시장이 워낙에 바쁘니까 다른 일을 할 생각도 안하고 자연스럽게 쌀시장을 부모님들과 함께 운영했죠. 이후 부모님이 물려주셔서 지금까지 쌀장사를 하게 되었죠.
- 질문3. 왜 시장을 구시장이라고 불렀나요?  
여기 시장이 계속 번창하고 넓어지니깐 반대편에 시장이 또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신시장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구시장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 질문4. 60여년 계속해서 쌀장사를 하고 계신 사명감 같은 것도 있나요?  
나는 솔직히 그냥 안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너무 오래했고, 이제는 힘에 부쳐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이 쌀장사를 천직으로 알고, 무조건 집에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면 다시 장사를 하러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만 못 두고,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시장에 나왔을 때에는 시장 식구들이 가족 같아서 여기서 일하는 게 그저 즐거워요.
- 질문5. 예전에는 상인들과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예전에는 진짜 더 가족 같았어요. 이곳 시장에서 있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많았죠. 먹으면서 정도 쌀이라고 밥도 같이 먹고, 싸우기도 했지만 싸우면서 정도 들었죠. 지금보다 젊었을 때에는 시장 가족들과 의지하며 장사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장사하다보면 "아이고, 벌써 몇 시가 됐네."하면서 하루가 딱 지나가곤 했어요. 서로 이웃이 같이 하루를 보내고 산다는 것이 즐거움이었지. 다르게 뭐 있었겠어요.
- 질문6. 한창 시장이 전성기였을 때, 시장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때는 공설시장을 구시장이라고 했어요. 구시장은 그야말로 알아줬자~ 아주 명성이 깊었죠. 모든 채소, 과일, 생선, 쌀

이 여기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로 다 모였어요. 쌀시장은 우리도 그때는 돈도 많았고 돈이 오가는 곳이 바로 구시장었죠. 큰돈도 오가고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엉덩이가 서로 맞닿아서 움직였을 정도로 사람들은 많고 길은 좁았죠.

- 질문7. 지금은 현대화된 시장이지만 그때는 모습이 어땠나요?  
그때 우리가 운영했던 쌀시장은 지금의 공설시장 북문 앞쪽이었어요. 그때에도 구시장은 2층으로 되어 있었지만 허술했지요. 쌀시장이 맨 앞쪽에 위치해 있어서 출기도 많이 추웠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추운지도 모르고 쌀시장을 운영했었네요.
- 질문8. 그럼, 그 옛날 쌀시장 앞에 강변이 흘렀다는 걸 아시나요?  
그렇죠. 거기를 세느강변이라고 했어요. 국밥집 앞에 도랑이 흘렀는데, 그 도랑을 세느강변이라고 불려서 아직까지 세느강변 국밥거리라고 하잖아요. 세느강변이 저기 패보선창까지 이어졌었지요. 패보선창이라고 옛날에도 유명했지요. 고기 많이 나고, 거기에 여객선 터미널도 있어서 거기도 늘 사람 뺏사람들 북적이고, 고기를 팔고 사느라고 돈도 많았고요.
- 질문9. 쌀은 어디에서 가져와서 팔았었어요?  
쌀은 군산의 팔마재에서 사왔어요. 달구지에 그때 당시 80kg을 사와서 흙이나 되에 나눠서 팔았죠. 흙이 뭔지 모르죠? 흙이 이렇게 작아도 흙으로 쌀을 사가는 사람이 그때는 흔하디 흔했어요. 흙이 10개가 되어야 지금의 한 되가 되는 거예요.
- 질문10. 흙이나 되가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공설시장으로 오면서 저울이랑 이런 것들은 모두 처분을 했거든요. 지금은 큰 저울이 필요하지도 않아서 이사 올 때 다 처분했어요.
- 질문11. 군산 공설시장의 옛 추억을 더듬어 주셨는데, 언제까지 이곳에서 장사를 하실 것 같나요?  
이제는 아들들도 다 키우고, 손자도 셋이나 있어요. 이제는 그냥 나와서 장사를 하는거예요. 여기도 쉬는 날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건강해서 많이 팔리든 안 팔리든 나와서 장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질문12. 구시장을 우리 후세대들이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나요?  
구시장이 번성했을 때에는 군산이 한창 살기가 좋았을 때였어요. 군산도 사람들로 북적이고,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했고, 구시장에는 없는 것 없이 많았던 곳이었다. 지금의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협소했지만 그 속에는 정이 있었고, 사람사는 맛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 ■ 2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0월 10일
- 장소 : 공설시장 내 선미양장
- 대상 : 오종순(65세, 여), 고향: 군산(65년 거주)





• 질문1. 군산이 고향이신가요?

나는 군산 토박이이지. 군산에서 나고 자랐지요.

• 질문2. 어릴 때 군산의 구시장길의 모습은 어땠나요?

엄마 따라서 여기 구시장을 올 때에는 설레었지요. 시장에는 구경할 것이 많았으니까요. 부모님이 시장에 가자고 하면 그저 좋아서 시장에 왔던 기억이 있고, 시장이 그때는 얼마나 커 보이던지 이곳저곳 구경을 하는 재미가 있었죠. 그때 사탕 하나라도 부모님께 얻어먹으면 얼마나 좋았던지 그런 기억들이 있지요.

• 질문3. 구시장에서 양장점을 운영한지가 얼마나 되나요?

49년이 됐지요. 여기가 옛날 구시장일 때, 아래층에서 천막치고 장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연탄을 땔었어요. 그니까 위험하기도 위험했었지. 그래도 위험한 게 대수가 아니었지요. 먹고 살야야 하니까 맞춤도 하고, 수선도 하면서 운영했었지요.

• 질문4. 양장을 시작한 계기가 뭐였어요?

어렸을 때 형제는 많으니까 나를 식모로 보내더라고요. 나는 그게 싫어서 영동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영동 수도양장점으로 들어갔어요. 수도양장점에서 일하다가 구시장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운전기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양장도 기술이니까 기술 배우면 좋겠지 싶어서 양장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미싱은 내가 양장을 오래할까 싶어서 일본 미싱을 중고로 샀었어요. 중고로 산 미싱이 아직까지 나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거죠. 웃기죠. 내가 양장일을 얼마나 하겠나 싶었는데,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 질문5. 미싱을 포함한 물건들이 다 30년 정도가 된 건가요?

미싱도 30년이 훌쩍 넘었어요. 고장도 없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게 신기할 정도네요. 미싱이 지금 나오는 것과는 다르게 무겁기도 하고, 기능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튼튼하니 좋아요.

• 질문6. 그 옆의 재봉틀은 어떤 용도인지요?

이건 오버로크 재봉틀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교복에 이름을 새기기도 해야 하고, 작업복이나 군복에도 이름도 새기고, 옷이 해지면 오버로크로 매우기도 해서 오버로크 재봉틀을 많이 썼었어요.

• 질문7. 가위랑 나무자도 사장님이랑 역사를 함께 한 물건인가요?

여기 가위 보이죠? 가위도 진짜 오래된거죠. 가위도 쓰다쓰다 잘 안 잘라지길래 칼 가는 곳에 가서 좀 갈아달라고 했는데, 가위 끝이 너무 낡았다고 해서 조금 잘라줬어요. 그래서 보통 가위보다 짧은 가위가 하나 있고, 나무 자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함께 한 물건이지요. 다리미도 양장점에서는 필수품이지요. 다리미도 무겁기도 무거운데, 바꿀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냥 양장점 물건들은 다 내 자식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 질문8. 양장점에서 맞춤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맞춤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나요?

옛날에는 옷을 맞춤으로 해 입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맞춤을 하는 곳도 구시장밖에 없으니까 많이들 찾아왔었어요. 결혼식이라든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예쁜 옷을 맞춰 입고 싶은 분들이 찾아왔었고, 지금 옷을 리폼하는 것처럼 수선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제가 약간 감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고, 옷도 예쁘게 수선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 질문9. 기존의 옷들을 어떻게 수선해 주셨다는 건가요?

옛날에는 옷들이 다 병병해서 허리만 줄이려고 오는 사람한테 통을 좀 줄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줄여주면 예쁘다고 좋아하곤 했지요. 진짜 감각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 질문10. 계속 장사를 하실건가요?

이제는 양장점 한 지가 오래돼서 어떻게 줄이면 되겠다 딱 견적이 나와요. 기술이 있으면 이렇게 오래할 수가 있구나! 싶어서 기술 배우길 잘한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어요. 공설시장은 내 소중한 직장인 거든요. 그리고 근무환경이 좋아서 여기에 출근하는게 좋아요.

### ■ 3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0월 10일

• 장소 : 양키시장 내 세미사

• 대상 : 형주안(60세, 남), 고향 : 군산(40년 거주)



• 질문1. 양키시장에서 장사를 하게 된 계기는?

7~80년대 그땐 군산 멋쟁이들은 다 이 시장으로 왔었지.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미제들을 살수 있는 곳이 여기였으니까. 나는 영동에 있는 양복점에서 일을 배우다 이곳으로 80년대에 들어와 지금의 옷 장사를 하게 되었지.

• 질문2. 내가 기억하는 양키시장은?

6.25때 한국에 들어온 미군들을 양키라고 불렀잖아. 여기 양키시장은 미군 군산비행장에서 흘러나온 군수품과 잡동사니를 사고팔다 형성되었었지. 양복점, 교복맞춤점이 엄청 많았어, 미제 강통도 팔고, 카메라도 팔고, 군화도 팔고, 잡지도 팔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것은 다 여기 양키시장에서 살 수 있었지. 여기 골목이 그때는 자갈길이었었는데 국민학교도 있어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교련복이나 교복을 맞추러온 학생들이 늘 찾았고 휴가 나온 미군부대 군인들도 많이 와서 늘 시끌벅적했던 골목이었어. 그때는 장사할 맛이 났어. 세월을 알 수 있는 물건들 그리고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물건들이 아직 상점에 남아 있기도 하고 이젠 군복보다는 일반 작업복이나 단체복 등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 양키시장의 품목들도 바뀌어가고 있지.

• 질문3. 추억이 남아 있는 물건은?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미군부대나 공설운동장, 중앙초등학교 터에 주둔하고 있던 한국군 보충대 주변에서 군부대로부터 흘러나온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곳이라 그때 팔았던 옷이며 물건들이 추억의 물건이지.

• 질문4. 언제까지 양키시장을 지킬건가요?

지금은 양키시장이 같이 장사하는 가게도 줄고 예전처럼 호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의 면모를 지키고 군복이나 작업복 단체복은 아직까지 양키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이 자리를 지키고 싶어.

#### ■ 4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1월 14일
- 장소 : 군산 공설시장
- 대상 : 박춘원(80세, 남), 고향 : 군산(80년 거주)



- 질문1. 군산 유일의 젓당꼬 앞에 사시게 된 계시는 어떻게 되나요?  
젓당꼬가 우리집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집 앞의 젓당꼬를 직접 운영하진 않았고, 주인은 따로 있어요. 나는 조기젓갈, 황석어젓갈이 젓당꼬에서 발효될 수 있도록 조기를 소금에 절여서 납품했었어요.
- 질문2. 젓당꼬는 주인이 따로 있나요?  
주인은 이제 이 세상분이 아닌걸로 알고, 젓당꼬가 오래되고 하니 우리가 젓당꼬를 매입해서 집을 좀 넓히려도 해도 재산이 자손까지 얹혀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몇 년전 젓당꼬가 허물어져서 우리집도 큰일이 날 뻔 했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젓당꼬이긴 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 질문3. 젓당꼬라는 말은 군산에서만 쓰는 말인가요?  
젓갈창고를 젓창고 젓창고 하다가 젓당꼬가 된 것이 아닐까? 군산에서만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젓당꼬라고 쓰다보니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질문4. 젓당꼬가 군산에 많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옛날에는 조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조기를 한가득 싣고 배를 동부어판장에 대면 상품성이 좋은 조기는 그 자리에서 팔기도 하고, 멀리까지 조기가 운반되려면 소금간을 해야 했지요. 그래야 간간한 조기는 영광의 굴비처럼 멀리까지 팔려갈 수 있으니까요. 냉동할 수가 없었으니 그런 방법을 써서 팔 수 있으면 팔고요. 나머지 상품성이 떨어지는 조기는 소금과 잘 섞어서 젓갈을 만들기 위해서 젓당꼬로 옮겨졌지요.
- 질문5. 젓당꼬가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크지요. 목욕탕 욕조같은 장소가 있는데요. 깊이도 어마어마합니다. 족히 3미터는 될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젓당꼬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다녔어요. 그니까 조기가 황석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젓당꼬에는 큰 배 한가득 조기가 있으면 그 조기가 다 들어간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당꼬 하나에 배 한 척의 고기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 질문6. 배 한 척의 고기가 다 들어가면 젓갈은 또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그니까 이 근처에는 아줌마, 할머니들이 젓갈을 이고 많이들 지나갔지요. 아침이 되면 젓당꼬에 아줌마, 할머니들이 쭉

서 있어요. 젓당꼬에서 젓갈을 사다가 머리에 젓갈을 이고, 충남 장항, 서천까지 그리고 군산역을 통해서 김제, 익산, 전주까지 군산의 젓갈이 팔려나가는 거지요. 그래도 먹고 살라고 머리에 그 무겁고 냄새나는 젓갈을 이고지고 파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지금은 여기에 노인들만 살고 조용하지만 옛날에는 젓갈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었지요.

- 질문7. 김장철에 장사는 어땠나요?  
김장철이 되면 젓당꼬를 운영하는 집들은 1년 중 제일 바쁘지요. 옛날에는 김장도 진짜 많이 담갔었잖아요. 그래서 젓갈이 잘 팔리니까 젓갈을 사서 팔려고 하는 일명 도매상들이 진짜 많이 찾아오지요. 김장철에 장사를 잘해야 1년 잘 먹고 살 수 있을 테니까요.
- 질문8. 당시 얼마나 번화했나요?  
전라북도에서는 동부어판장이 제일 컸지요. 이 동네는 조기, 황석어로 다 먹고 살았지요. 나도 여기서 장사하면서 아이들 공부 다 시켰으니까요.
- 질문9. 젓당꼬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젓당꼬가 무너질 수 있어서 군산에서 못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젓당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젓당꼬도 이렇게 오래돼서 허물어져 가고 있잖아요. 젓당꼬가 이제는 군산에서 사라질 날이 얼마남지 않았지요. 이렇게 젓당꼬를 취재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후세들도 기억을 하겠지요.

#### ■ 5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1월 16일
- 장소 : 궤보선창
- 대상 : 권남균(70세, 남), 고향 : 군산(70년 거주)



- 질문1. 궤보선창에서 오래 사셨죠?  
나는 궤보선창 바로 앞에서 살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물길 앞에 집이 있었죠. 그물 가게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물이 튼튼해야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우리 그물집은 그야말로 문전성시였지요.
- 질문2. 그물집이요?  
아버지가 14후퇴 때 군산에 와서 그물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때는 200~300여직원이 근무했던 그물 공장도 크게 하셨었지요. 군산의 직업 창출에 공이 크셨지요. 당시에는 궤보선창과 고군산군도 섬뿐만 아니라 충청도, 경기도까지 그물이 나갔는데, 선주들이 미리 선금을 내고 그물을 가져가려고 했을만큼 늘 부족했던 것이 배그물이었어요. 아쉽게도 아버지대에서 사업이 끝났지만 우리 아버지께 대한 자랑스러움은 늘 가지고 있어요.



• 질문3. 꾀보선창이 왜 꾀보선창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창에서부터 좁은 길로 바닷물이 들어와 좁은 수로를 지나면 다시 넓게 펼쳐있어 꾀졌다고 해서 꾀보선창이라고 불렸어요. 꾀보선창 안으로 들어온 배들은 태풍에도 안전했지요.

• 질문4. 꾀보선창에 살면서의 기억을 좀 더듬어 주세요.

우리집엔 항상 게가 들어왔었어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라 민물털게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놈을 잡아서 게장을 담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맛을 지금은 맛볼 수가 없어서 아쉽지요. 그때는 집집마다 생선인심이 참 좋았어요. 바로 앞에서 고기를 잡으니까 만선이 빠르기도 하고요. 지금도 꾀보선창에서 낚시들을 하시지만 그때는 뱀장어가 팔뚝만한게 잡혔었고, 뱀어도 참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토사로 배도 돌리지 못해서 선창의 기능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군산에서 여기가 땅값이 제일 비쌌고, 배가 한번 고기를 채우고 오면 1억원도 넘었어요.

• 질문5. 꾀보선창이 있었기 때문에 군산이 부유했었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꾀보선창에 지나다니는 개들도 돈을 물고 다녔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당시 고속버스 배차간격이 가장 빠른 곳이 군산이었어요. 군산에 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빨리 전국으로 실어 날라야 하니까 배차간격이 빠를 수밖에 없었죠.

• 질문6. 꾀보선창은 어떤 이유에서 없어지게 됐나요?

안타깝게도 지금의 도시재생 숲이 있는 자리에 화학공장, 주정공장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서 폐수를 내보내면서 오염이 돼서 고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선창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돼지국밥 거리에서도 쓰레기들이 흘러오고 그러니까 복개를 통해서 덮어버린거죠. 80년대 중반쯤에 덮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꾀보선창에서 도시재생 숲까지 다리가 놓여있었거든요. 다리도 복개를 하면서 없어졌지요.

• 질문7. 꾀보선창이 있을 당시 어판장도 있었고 해서 여기는 그야말로 상권의 중심이었겠어요.

그렇죠. 여기 막걸리집도 많았고요. 만선해서 들어오면 여기서 즐기는거죠. 그래서 꾀보선창을 중심으로 없는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가게들이 즐비했지요.

• 질문8. 채만식 소설 탁류를 통해서 알려진 꾀보선창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꾀보선창이 다 복개가 되어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텐데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어서 반갑네요.

## ■ 6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1월 16일
- 장소 : 구시장길 대동 대장간
- 대상 : 최재원(50세, 남), 고향 : 군산(50년 거주)



• 질문1. 대동 대장간이 군산에서 가장 오래된 대장간인가요?

아버지가 해오셨던 대장간을 대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간판은 100년이 넘었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한 지가 지금 60여년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우리집 말고도 여러 대장간이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대장간이 딱 두군데네요.

• 질문2. 대동 대장간 예전의 모습은 어땠나요?

아버지 혼자서는 못하시니까 그때는 인부도 있었지요. 근데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하시니까 가업을 잇겠다는 사명감보다 그냥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내려와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거죠. 근데, 이제 저도 몸이 아파서 대장간 일을 하지는 못하고 팔기만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 때도 있지만 문을 닫고 쉴 때도 많아요.

• 질문3. 대장간에 오니까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농기구들이 참 많네요.

옛날에는 농기구들 많이 팔렸지만 지금은 다 기계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농기구들이 많이 팔리지는 않고, 가정에서 쓰는 칼들, 그리고 밭일할 때 쓰는 것들이 주로 팔립니다.

• 질문4. 대장간 옆 화로는 사용하지 않나요?

지금은 제가 몸이 불편해서 화로에 쇠를 달궜서 매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쇠를 직접 달궜서 매질을 하고 다듬기도 했지요. 이렇게 해야만 쇠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는 걸 손님들이 좋아합니다.

• 질문5. 어떤 물건들을 주로 제작하였나요?

옛날에는 목선도 많아서 못 만들어주라는 주문들이 많아서 각각의 배에서 쓰는 못을 주문 제작해주기도 하고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꺾쇠도 많이 만들었죠.

• 질문6. 이 자리에서 대장간을 지키시는 이유가 뭔가요?

몰라요. 나도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 꼭 어떤 의미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그냥 나와요. 그냥... 문은 열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또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가시니까요. 요즘은 이런 것들도 마트에서 다 팔지요. 근데, 대장간에서 사는 물건만 못해요. 확실히 다르지요. 그래서 어른들이 대장간을 찾는 이유예요. 대장간의 물건들이 아무래도 튼튼하고 오래가니까 앞으로도 대장간은 아이들에게는 박물관 같을지 몰라도 어른들에게는 이만한 곳이 없을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박물관이지만 어른들에게는 백화점이에요.

## ■ 7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1월 16일
- 장소 : 중앙상가 내 호남기름집
- 대상 : 배전호(70세, 남), 고향 : 군산(70년 거주)



- 질문1. 호남 기름집, 방앗간이 생긴지 얼마나 됐어요?  
1975년도에 생겼지요. 2월에 이 시장에 들어왔지요. 사촌지간에 함께 기름집을 하고 있는데 매일 새벽 기름집 문을 열었지요.
- 질문2. 새벽에 문을 열어도 새벽부터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럼요. 여기가 방앗간이랑 같이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불린 쌀을 가져와 빵이달라는 분들, 빨간 고추를 다 말리고 나면 여기와서 고추도 빨고, 깨 털어가지고 와서 깨를 볶아가고, 참기름, 들기름 짜려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침부터 와서 여기서 기름 짜면서 기다리는 시간동안 동네 사랑방이었죠.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여기오면 다 알 수가 있고, 동네사람들이 다 만나는 곳이 기름집, 방앗간이죠.
- 질문3. 그럼, 여기 있는 기계들이 기름집 나이와 같은 건가요?  
여기 있는 도구들이 거의 50년 된거지. 새로 산 것도 있지만 50년 전에 있던 물건들이 많지요. 이 간판을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지요.. 지금은 간판이 바뀌어서 이 간판이 가게 한쪽에 있지만 전화번호 봐요. 한자리잖아요. 50년 전에는 전화 번호가 이렇게 한 자리였다고요. 옛날에 기름을 짤 때는 연탄을 썼었죠. 연탄을 갈 때 이 꼬챙이가 필요했는데, 꼬챙이가 이 기계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길었어요. 근데 쓰다보니까 닳고 닳아서 이렇게 짧아졌어요.
- 질문4. 옛날에는 연탄으로 깨를 볶고 기름을 짜고 그랬겠네요.  
그렇지요. 연탄으로 했다가 그다음으로는 석유, 지금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요.
- 질문5. 옛날 기름병도 지금처럼 소주병크기였을까요?  
아니요. 초병에 팔았지요. 식초병, 빙초산병 그 병에도 참기름을 짜서 가져갔지요. 참기름이 귀한게 빙초산병에도 박카스병에도 담아가고 그러다 점점 커져서 소주병에 가져가고 그다음에 생수병으로 바뀌었지요.
- 질문6. 앞으로도 계속 이 기름집을 운영할 생각인가요?  
사실 나는 많이 힘들긴 해요. 그렇지만 형님이 계속해서 기름집 운영을 고집하시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아침을 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질문7. 호남 기름집, 방앗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가장 먼저 기름집 문을 여는거와 성실하게 한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온 기름집이라는 거지요.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기름집을 하고 있으니깐 많이들 와서 기름도 짜가고 방앗간도 이용해요.

## 2. 아메리카타운

### 개요

조사자	백수경 · 김도훈	
조사 동기· 목적	• 군산 아메리카타운(산북동 505-19)은 1970년대 군산의 주한미군을 위한 '위락유흥지역'으로 외화벌이의 중요한 공간이었으나 미군 범죄와 성매매로 고통 받는 인권의 사각지대이기도 했던 장소 •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고통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제2의 이태원을 꿈꾸며 희망을 품고 찾아왔을 누군가에겐, 추억과 역사의 공간인 곳의 기록 • 지금도 철거와 수용이 진행 중인 이곳이 허무하게 사라지기 전에 아메리카 타운의 현재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록	
활동 개요	컨설팅 받기	•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 • 문정현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 • 문정현 전문위원과 전화상담
	현장 방문	• 일시 : 9월 25일, 10월 25일, 11월 23일 • 장소 : 미성동 주민센터, 아메리카타운일대
	인터뷰 활동	• 일시 : 8월 28일, 9월 23일, 9월 25일, 10월 23일, 25일 • 활동 : 아메리카타운 내 가게 주인과 인근 주민들
	문헌자료 조사	• 일시: 8월 30일 ~ 11월 20일 • 시립도서관, 인터넷 자료 검색 등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 일시 : 8월 23일 ~ 12월 07일 • 활동보고서, 워크샵, 중간성과공유회, 최종성과공유회
	워크샵에서 발표	• 중간 발표 (10월 20일) • 최종 발표 (12월 09일)

### 활동 과정

#### ■ 1차 활동

- 일시 : 2022년 8월 14일
- 장소 : 아메리카타운 일대
- 아메리카타운의 과거와 현재 인터넷 자료검색 및 도서관 문헌 조사





- 인터넷뉴스, 신문, 블로그 등으로 과거 모습 조사
-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동네 관련 자료 조사
- 아메리카타운에서 예전부터 살고 계시던 인터뷰 대상 연락

■ 2차 활동

- 일시 : 2022년 8월 28일
- 장소 : 아메리카타운 일대



- 아메리카타운 현장조사
  - 며칠 전에 없었던 입구를 막아버린 펜스와 그곳에 붙여진 토지 소유자의 안내문 확인

- 영업주들의 영업 중단을 촉구하면서 통행을 제한한다는 내용
- 공사가 아직 시작되진 않았지만 재개발이 곧 시작될 것 같다.
- 골목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상권의 골목골목을 걸어보기 :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과거 활발했었다던 상가들의 모습을 회상할 수 있었다.
- 아메리카타운의 과거와 현재 주민 스케치
  - 아메리카타운 일대의 세탁소를 방문하여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사장님과 인터뷰
  - 아메리카타운 일대의 상점 방문

■ 3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4일
- 장소 : 아메리카타운 일대



- 아메리카타운의 현재 모습 사진과 동영상 촬영
- 식당 및 많은 가게들이 개방되어 있지만 영업을 오랫동안 하지 않아 방치되어있음
- 사람이 없고 비어있으니 건물 내 · 외부상태가 허물어지기 직전의 상태임을 확인
- 몇몇 상가들은 상권을 되찾기 위해 리모델링 등 노력한 것이 보였으나 대부분이 폐점 위기의 상태로 희노에 락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모습임
- 과거 보건소로 사용 되었던 곳이 현재는 경로당으로 사용 중(외부촬영)

■ 4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17일
- 장소 : 사단법인 아리울역사문화



- 해방 이후 미군정 체제에서 아메리카타운이 만들어진 유래
- 아메리카타운의 텅 비어있는 현재 모습 사실과 기록
- 미성동 동주민센터 방문 조사
  - 초기 인구조사 및 인근 주민들의 수입창출 방법
  - 미성동 주민 인구 감소 이유
  - 현재 남은 주민들의 생활고
  - 위성지도를 통한 마을의 모습
- 아메리카타운의 향후계획
- 주민들의 인터뷰 및 현장조사
- 감성 사진으로 SNS에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홍보

5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23일
- 장소 : 아메리카타운 임사마을 일대
-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을 하고 상가 주변을 가꾸는 모습 확인
- 상가연합회에서 재개발 반대 의사 표현 : 마을 입구에 3~4개의 현수막 설치
- 헤브론교회와 그 당시 보건소 : 교회는 현존하고 있으며 보건소는 임사 경노당으로 사용 중
- 헤브론교회는 예정 합동총회 군산노회가 1980년대 특수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교회
- 군산노회는 이 지역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1980년 교회 설립을 결의하고 땅을 매입한 뒤 전국 교회와 성도들의 헌금으로 헤브론교회를 건축

6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25일
- 일시 : 아메리카타운 일대
- 인근에 살고 계시는 이00 할머니 인터뷰 / 고향 : 부산(군산거주, 40년)

- 질문1. 군산에는 언제 오셨어요.  
나이는 86세이고 고향은 부산인데 1970년대 그 때 당시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 지인 따라왔다.
- 질문2. 오셔서 무슨일을 하셨나요?  
아메리카타운 안에 클럽에서 마담으로 10년 좀 넘게 일했지, 책임 마담은 손님 접대 안하고 그냥 마담은 손님을 접대 했다. 몸이 아파서 마담일 그만 두고 타운 앞에서 오뎅도 팔고 떡볶이도 팔아보고 그것조차도 아파서 그만두고 그냥 살고 있다.
- 질문3. 가족은 누가 있나요?  
결혼하려다 잘못돼서 혼자 산다.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다.
- 질문4. 50년 전에 아메리카타운 분위기는 어땠나요?  
미군들이 1~2주에 한 번씩 클럽 위생 점검을 나왔었다. 한국 사람들은 손님으로 한명도 받을 수 없고 그때는 100% 미군들만 왔었다. 그때는 헌병들이 있어서 한국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만약에 한국 손님이 있었다면 그 가게는 문닫게 했다. 보건소에서 성병 검사는 1주에 2번씩 검사를 했고 성병이 걸리면 보건소에서 가둔다. 그 여성들에게 면회 가서 직접 밥해주었다. 성병 걸린 여성들은 사진을 붙여두기도 했다. 미국을 선망하는 소수의 대학생들이 미국을 가고 싶어 일부러 이곳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다. 결혼해서 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 맥주도 OB와 크라운 일반 맥주와 다르다. 병이 좀 작는데 그것만 먹었다. 여성 월급은 2~3만원 정도였다. 헌병들이 계속 돌아다녀서 미군들이 여성들에게 함부로 하지는 않았다. PX에서 물건을 살 수 있었고 교환반품이 되어 좋았었다. 당시 방이 부족해서 동네 사람들은 빨래해 주고 방 내주고 방 치워 주고 밥해주는 일도 했다.
- 질문5. 아메리카타운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어져야 된다. 나는 아무 상관없지만 장사도 안되고 지금은 한국 사람만 받고 있다.
- 질문6. 현재는 어떻게 생활하시는지요?  
옛날 보건소 자리가 지금은 경로당으로 바뀌어서 동네 사람들 모일 때 자주는 아니고 한 번씩 놀러가고 있다. 과거에 무슨 일 한 줄 아는 사람들이라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닌데 그중에 한두 명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서 잘 안 가게 된다.

7차 활동

- 일시 : 2022년 10월 16일
- 장소 : 아메리카타운 일대
- 아메리카타운 인근 주민 이효식씨(남) 인터뷰 / 고향 : 군산

- 질문1. 군산에는 언제 오셨어요.  
67년도에는 이 동네는 야산이었다. 나는 1974년도에 왔다. 아메리카타운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세탁소 일을 배워서 41년째 운영하면서 이장직을 맡고 있다. 양복점 목욕탕 등등 57종의 가게가 활발했었다. 매형이 이발소 했는데 옆집 세탁소에 와서 일 배우라고 누나가 여기로 오라고 했다. 월급도 못받고 명절 때만 돼지뼈, 돼지고기, 소주, 차비만 줘서 집에 다녀왔다. 40~50 가구였는데 1인1가구 250세대가 생겨났었다.
- 질문2. 현재는 러시아 여성들이 많지만...  
이전에는 필리핀 여성들도 많았었죠?필리핀 여성들이 인건비도 저렴하고 영어가 통하니까 많이 있었다.

## ■ 8차 활동

- 일시 : 2022년 10월 23일
- 장소 : 아메리카타운 일대
- 아메리카타운 재개발진행상황 주민 인터뷰(김춘권, 박풍, 백형기) / 고향 : 군산



- 질문1. 언제부터 여기에서 살게 되셨나요?  
45년 이상 되었다. 지금 현재 타운 안에서 클럽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됐다.
- 질문2. 어떤 일을 하셨나요?  
타운 안에서 당구장도 했다가 꽃집도 했다가 슈퍼도 했다가 외국인 전용홀도 했다가 십여가지 일을 했었다. 예전에 양색 시들이 최고 많았을 때 527명이였다. 미군들이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1,200~1,300명 정도가 왔다. 우리나라는 토요일 휴일인지 원지도 모를 당시에 미군들은 5일 근무를 했었다. 1973년도까지 군표를 사용했다. 타운안에서 가전제품도 팔 았다가 유선 방송 허가 내는 일도 했다. 1979년에는 조건부상권 매매계약서를 썼고 (주)옥구아메리카타운에 17평에 권리 금 150만원 고 장사를 했다. 개인이 재산 행세를 할 수 없었다. 2015년, 16년도에 등기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단합이 안되서 잘 안되었다.
- 질문3. 어떤 문제였나요?  
매매계약서가 있는데, 분양을 한다고 또 돈 주고 사라더라. 일부 주민들이 돈 들어간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돈 내고 라도 분양을 받겠다는 사람이 있었으나 어떻게 분양을 받기는 했다.
- 질문4. 재개발소식이 있던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협상단계이다. 건설사측에서는 평당 3백만에 매입하기를 제시했고 주민들 입장에서 6백을 제시해서 절충중이다. 삼백 오십까지는 얘기가 된 상태다. 근데 영업주들은 평당 4백5십 넘게 들어왔는데 타산이 안 맞는다고 거부하는 입장이다.
- 질문5. 주민들의 재개발 찬성여부는 어떤가요?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100% 찬성하는데, 현재 영업을 하고있는 영업주들은 투자금이 있어서 반대중이다.

- 질문6. 미군들은 아예 오질 않나요?  
예전엔 열아홉 곳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오스카라는 곳 한곳에만 온다. 그리고 뽀빠이 식당은 금요일 토요일 예약하고 불고기 먹으러 온다.
- 질문7. 건설사는 믿을만한 곳인가요?  
전북의 제일건설 정도의 크기인 것 같다. 김제에도 아파트 지었더라. 중간에 도망갈 업체는 아닌 것 같다.

## ■ 9차 활동

- 일시 : 2022년 11월 23일
- 장소 : 미성동주민센터와 시청
- 재개발 아파트 건립 신청된 상태
- 민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의 군산시의 계획은 따로 없다

### 3. 미성동 이야기

개요

조사자	김기향 · 김성태	
조사 동기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뜨리, 안들, 불구메, 석화, 구마모토, 미야기, 열대자, 앞꼬지, 뒷꼬지 등 어렸을 때부터 들어 귀에 익은 우리 지역 군산시 도농 복합동인 미성동(산북동)의 광활한 평야에 위치한 마을들의 이름과 표지석 조사</li><li>• 국토지리원과 군산문화원의 옥구에 대한 논문을 조사하고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가는 마을의 이름들과 표지석을 확인하며 마을 어르신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할 예정이고 사진과 자료를 정리</li></ul>	
활동 개요	컨설팅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li><li>• 문정현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li><li>• 문정현 전문위원과 전화상담</li></ul>
	현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 9월 25일</li><li>• 활동 : 미성동 일대</li></ul>
	인터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 9월 13일</li><li>• 활동 : 마을 주민 인터뷰</li></ul>
	문헌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 8월 30일 ~ 10월 14일</li><li>• 시립도서관 방문, 국토지리원 자료조사, 군산문화원 방문</li></ul>
	기억지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0월 16일~23일, 10월 30일~ 11월 6일</li><li>• 11월 20일~ 27일</li></ul>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 8월 23일 ~ 12월 07일</li><li>• 활동보고서, 워크샵, 중간성과공유회, 최종성과공유회</li></ul>
	워크샵에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간 발표 (10월 20일)</li><li>• 최종 발표 (12월 09일)</li></ul>

활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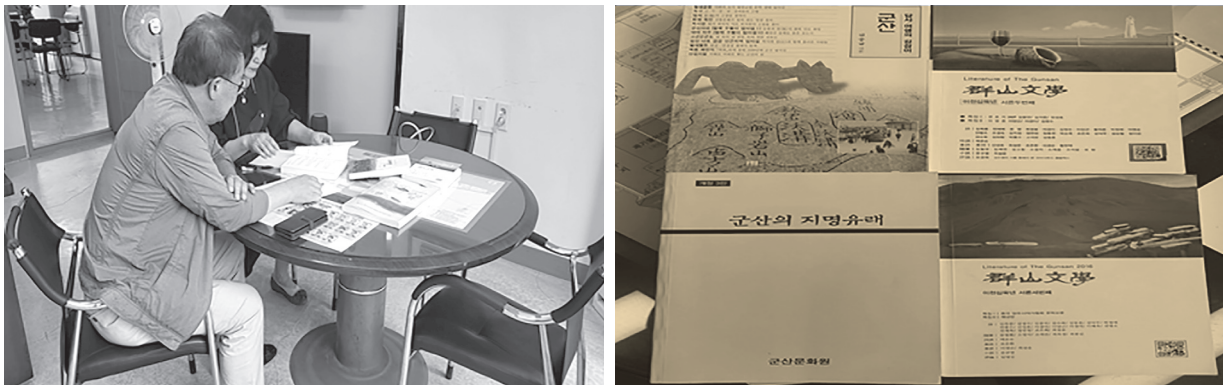
- 1차 활동
  - 일시 : 2022년 9년 1일
  - 장소 : 사단법인 아리울역사문화
  - 컨설팅 내용



- 미성동 마을의 유래 및 표지석 찾기
- 대상마을의 위치, 역사, 자연환경, 인구조사, 가구수 가구 형태, 조연자의 인터뷰 정리

■ 2차 활동

- 일시 : 2022년 9년 13일
- 장소 : 시립도서관, 군산문화원



- 미성동 마을의 문헌조사 차 시립도서관 및 군산문화원 방문
  - 김중규 저, 군산답사 여행의 길잡이, 군산역사 이야기, 군산의 역사와 문화
  - 이복웅 저, 군산시 고유지명에 관한 연구
  - 군산학 5권

■ 3차 활동

- 일시 : 2022년 9년 13일
- 장소 : 미성동
- 원주민 김화영씨 인터뷰





- 칠성마을은 뒤쪽(동향)으로 소나무와 멧개 앞이 무성한 번개산과 독점재(나운동 군경묘지 ~ 칠성방죽)가 있었고 앞쪽(서향)으로 넓은 평야(일제시대 간척사업)가 있었다.
- 번개산 넘어 일출과 들판 끝에 있는 서해바다의 낙조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으며 미면사무소가 있는 소재지에는 예쁜 소나무가 있었다.
- 면사무소 정문 앞에는 이발소, 대서소, 도장파는 점방이 있었고 옆에는 칠성 주조장이 있었다.
- 70년대 후반 택지개발(4토지 구획정리) 이전에는 면소재지인 칠성마을에 50여 세대의 많은 주민이 살고 있었다.
- 현재는 택지개발지 안에 5세대 정도의 원주민이 살고 있다.

4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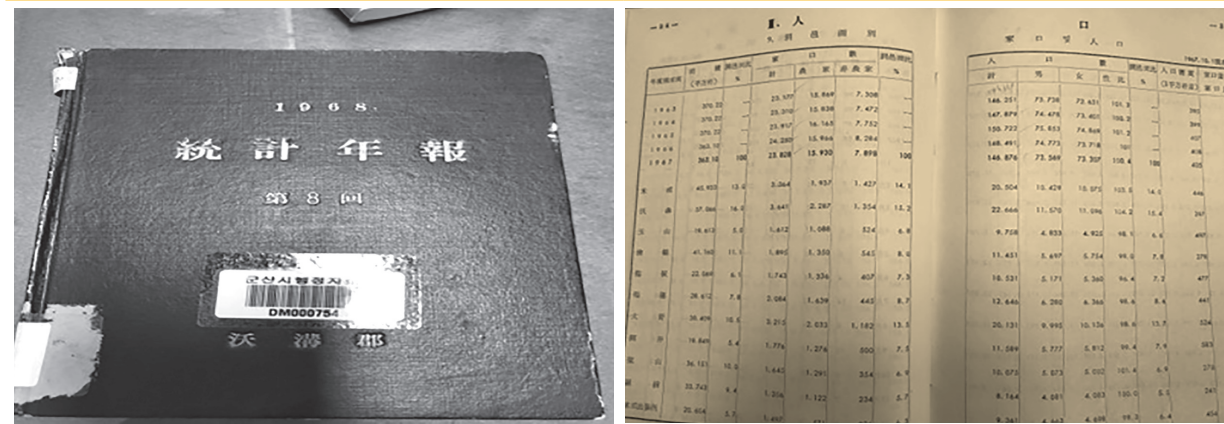
- 일시 : 2022년 9월 25일
- 장소 : 사전마을



- 사전마을에는 50~60년대 모래를 채취해서 군산시와 옥구군 건설 현장에 공급하는 모래터가 있었다.
- 모래터 인근에 유성(별동이라 부름)으로 추측 되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있었다.
- 사전정미소 2층 건물(사진)이 있었다.
- 그 당시에는 사전마을에는 뒷골 방죽이 있었다.

5차 활동

- 일시 : 2022년 10월 8일 ~ 9일
- 장소 : 군산시청 자료실 외
- 미성동(미면 산북리) 연혁



기본현황

- 우편번호 : 454-7820
- 동사무소 : 군산시 공항로 371
- 행정구역 : 3법정동(개사동, 산북동, 내초동) 42개통, 173개반
- 인구수 : 총 11,326명 2022년 6월 말
- 기준세대수 : 6,701세대
- 면적 : 29.54km<sup>2</sup>
- 의회 : 의원3명(미성, 소룡, 해신, 신평, 문화)

연혁

- 1895 조선 고종 32년 : 옥구현 미제면
- 1899.05.01 : 옥구군 미면 둔율리 (개항 전후 각지에서 유입)
- 1914 : 군산부 신평리
- 1932.10.01 : 옥구군 미면 신평리, 둔율리 일부를 군산부로 편입
- 1940.11.01 : 미면 신평리 일부 및 둔율리 일부를 군산부로 편입
- 1945.08.15 : 옥구군 미면, 신평리, 미룡리- 1949.08.15 : 옥구군 미면 신평리
- 1962.12.01 : 미면에 미면 출장소를 설치 (10면 1출장소)
- 1973.07.01 : 미면 미룡리, 신평리를 나운동, 둔율리를 수송동, 경장리를 미장동으로 편입(46동)
- 1974~1995 : 군산외항 제1, 2, 3부두 축조
- 1978~1985 : 군산지방산업단지 162만 평 조성
- 1980.12.01 : 미면이 미성읍으로 승격



- 1983.02.01 : 옥구군 미성읍 일부 소룡동으로 편입
- 1983.02.05 : 옥구군 미성읍 산북리 일부 군산시 편입
- 1986.04.01 : 미성읍 미성 출장소가 옥도면으로 승격
- 1988.12~1994.12 : 군산국가산업단지 207만 평 조성
- 1989.01.01 : 옥구군 미성읍 및 옥도면 오식도와 비응도가 군산시 미성동으로 개칭
- 1993.05 : 군장국가산업단지 477만 평 지구 착공
- 1995.10.28 : 군장신항만 군산측 1공구 안벽축조공사 착공
- 1998.01.01 : 옥도면 오식도, 비응도 소룡동으로 편입
- 2004.02.01 : 미성동관할 신관동, 개사동일부 나운3동 편입

#### • 독점재

교통이 불편했던 50~70년대 중반까지 산북동 일원 주민들이 군산 시내, 대야 지경장 등을 가려면 이 재(고개)를 넘어 다녔으며 나운동 군경묘지 쪽에서 독점재까지 힘들게 올라오면 서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흠뻑 젖은 땀을 시켜주던 곳.

#### • 상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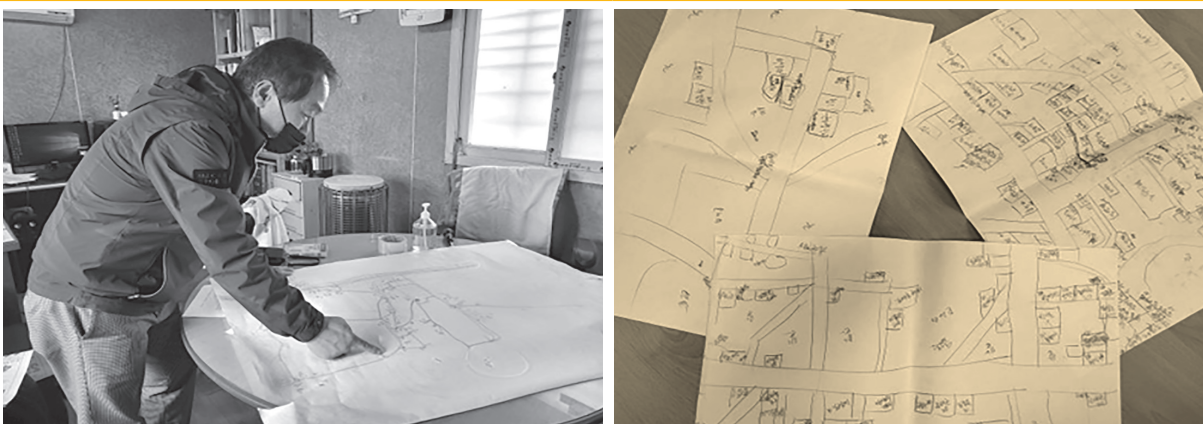
원산북, 사전, 칠성마을 인근의 산은 산북동의 지리적 특성상 장지가 없어 현 4토지구 일부가 산 중턱으로 공동묘지가 형성된 곳이었으며 칠성마을에서 군경묘지 방향으로 독점재를 넘어가는 초입 우측 100여m에 상여집이 있었고 장례문화가 미흡했던 시절 마을 사람들의 공동 운구 도구인 상여를 보관하던 곳.(현 산북초등학교 인근)

#### • 번개산

60~70년대 초까지 독점재에서 칠성마을로 내려오다 보면 왼쪽산 정상에 흰바위가 보였는데 지금은 산림이 우거져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산 정상 바위가 번개를 맞아 하얗게 되었다고 불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바위 형성이 원래 하얀색(수정 돌)이었다고 생각됨.(연권농장 / 동아로 58-22 위 정상)

### ■ 6차 활동

- 일시 : 2022년 10월 16일 ~ 23일
- 장소 : 원삼북 마을 일원
- 미성동 원삼북 마을 기억지도 만들기



#### • 원산북마을 면사무소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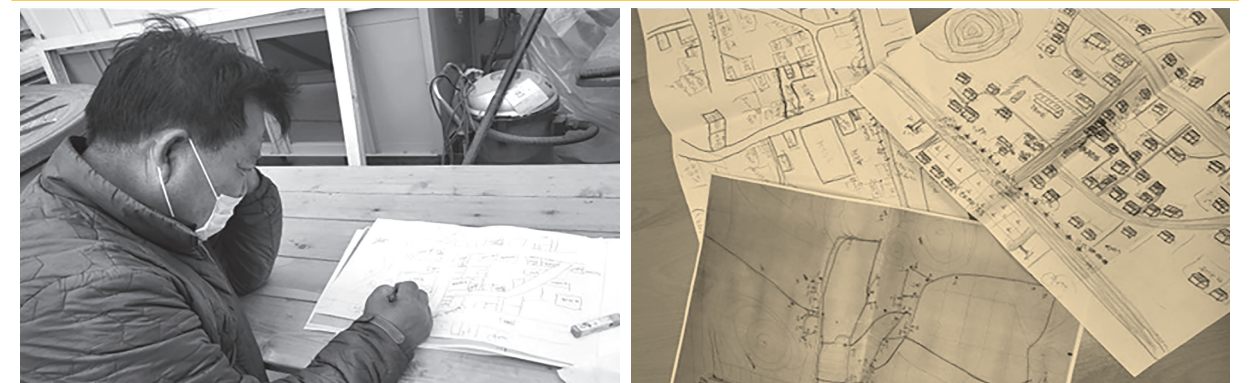
군산 비행장에서 시작되는 26번 국도에 있는 버스 승강장으로 원산북, 칠성, 사전 일부 마을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던 곳으로 군산에서 미면사무소를 가려면 이곳에서 하차를 하여 걸어가야 했던 곳. (현 한양에너지 인근 산북로 1273-3)

#### • 원산북마을 정자나무

나라에 큰일이 닥쳤을 때 마을 대표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북쪽을 향해 큰절을 했다는 곳.(고 하반영 화백이 살았던 마을로 생존시 손주에게 들려줌)

### ■ 7차 활동

- 일시 : 2022년 10월 30일 ~ 11월 6일
- 장소 : 칠성마을 일원
- 칠성마을 기억지도 만들기



#### • 칠성마을 면사무소

지금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월명터널 입구, 군산남중학교 앞, 경장동 장미장 여관, 개사마을, 도서지역 옥도면, 나운동, 문화동 등 행정구역이 가장 큰 면사무소 소재지가 칠성마을에 있었음.(현 근로복지관 인근)

#### • 칠성마을 앞골 방죽

일제 강점기 간척지 사업시 인근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고자 조성한 작은 저수지로 인근 동네 아이들이 여름철에 먹을 감았던 곳으로 독점재를 넘어 칠성마을로 가는 초입 오른쪽에 있었으며 규모는 사전 뒷골 방죽보다 조금 컸음. (현 대명아파트 인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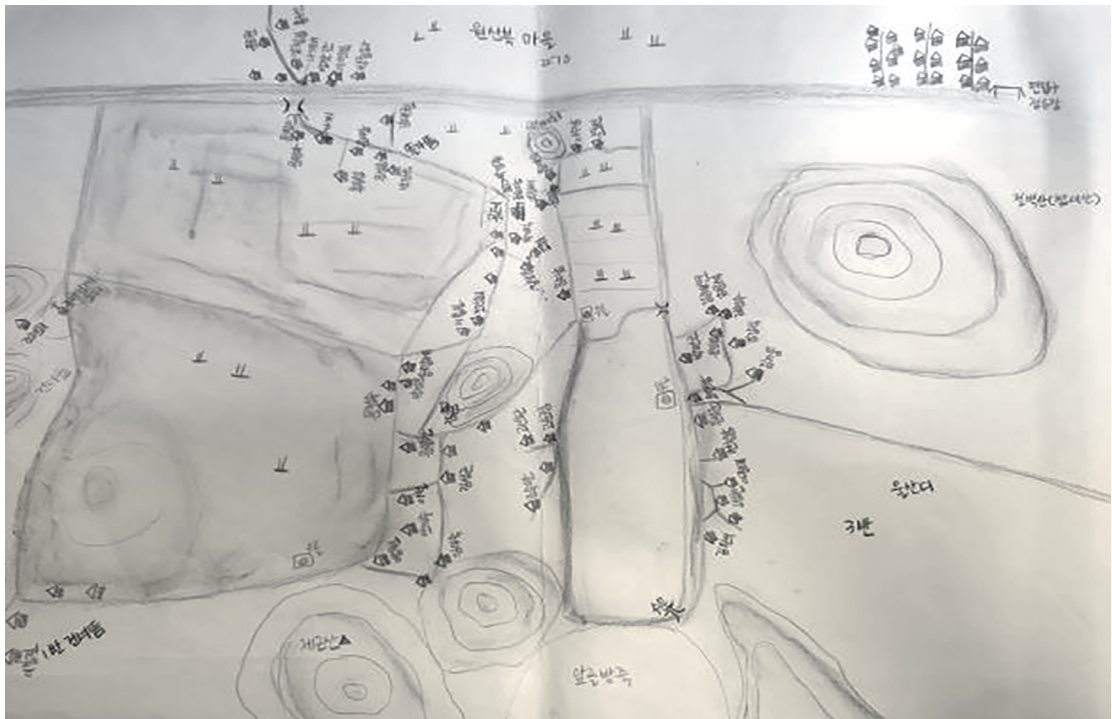
■ 8차 활동

- 일시 : 2022년 11월 12일 ~ 13일
- 장소 : 사전마을 일원
- 사전마을 기억지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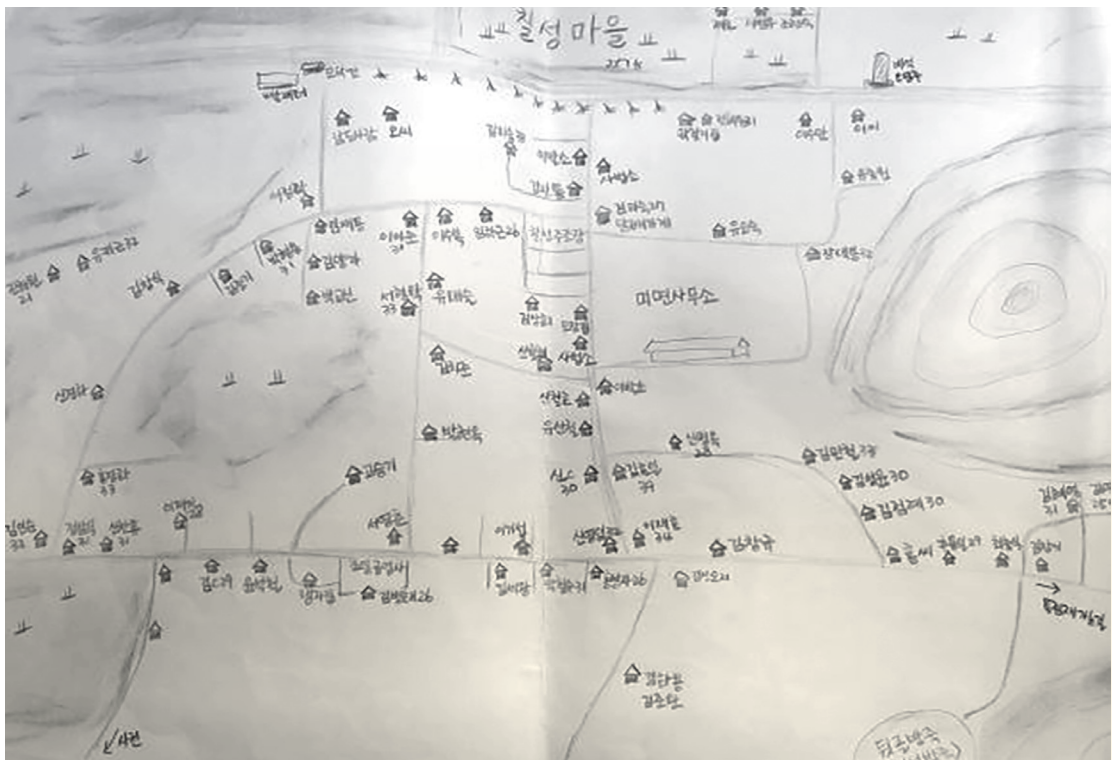
- 사전마을 별동  
수십 년 동안 있던 바윗돌이 언제인지 모르게 사라졌지만 직경 2m 정도의 큰 바윗돌이 모래밭 언저리에 있었는데 추측으로 유성(별동)이라 부름.(현 미성로 391-1)
- 사전마을 모래터  
사전마을은 해안가였는데 일제 강점기 간척지 사업으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아 해방 후 군산시,옥구군 일원 건설 현장에 필요한 모래를 채취하던 터.(현 은혜복지센터 일원)

■ 9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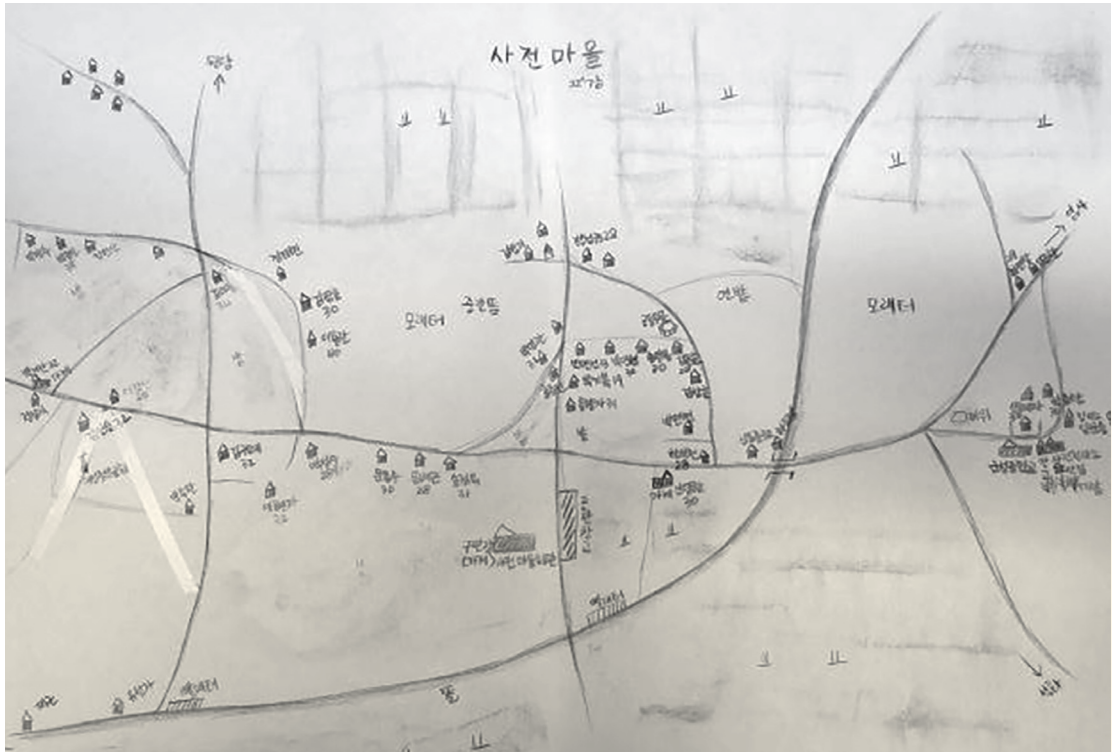
- 일시 : 2022년 11월 20일 ~ 27일
- 장소 : 미성동 마을 칠성, 사전, 원삼북
- 기억지도 만들기(도움주신 분 : 마을주민 이용희, 김창규, 김영호)



원삼북마을



칠성마을



사전마을



# 4. 오룡동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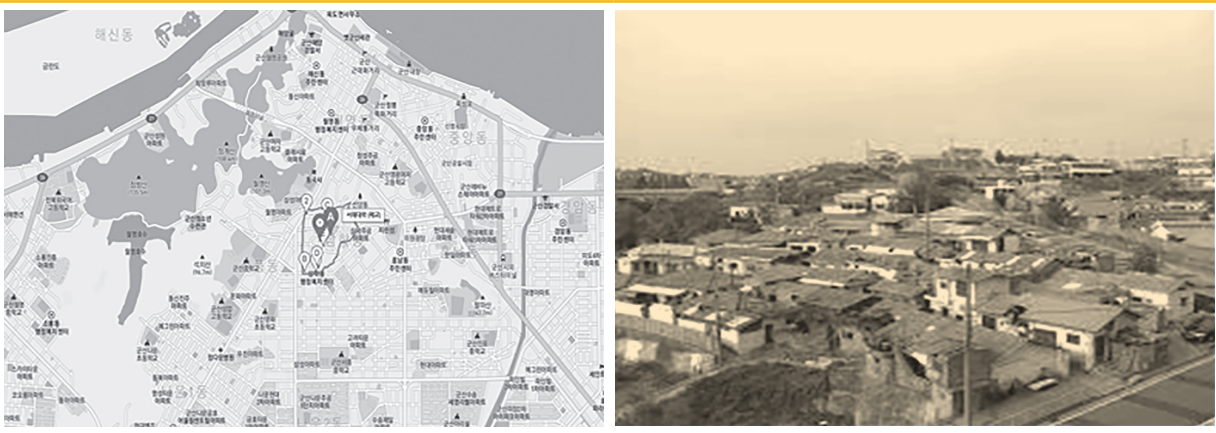
## 개요

조사자	임유미 · 이상기	
조사 동기 · 목적	• 군산 오룡동 말랭이마을의 삶과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까워 오룡동 말랭이 마을을 기록 • 마을의 역사와 문화, 마을 주민들의 옛 추억이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을 찾아서 군산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발굴	
활동 개요	컨설팅 받기	•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 • 문정현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 • 문정현 전문위원과 전화상담
	현장 방문	• 일시 : 9월 23일, 24일, 30일, 10월 7일, 21일, 28일 • 활동 : 삼오경로당, 오룡동경로당, 서해경로당, 두부공장있던곳, 금광공원, 노인회관, 요양원, 삼성병원(카디날공장터)
	인터뷰 활동	• 일시 : 9월 1일, 2일 • 활동 : 마을 주민 인터뷰
	문헌자료 조사	• 일시 : 8월 30일 ~ 10월 14일 • 조사 문헌 사이트 : 지역N 문화, 디지털군산문화대전 향토백과, 군산시립도서관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 일시 : 8월 23일 ~ 12월 07일 • 활동보고서, 워크샵, 중간성과공유회, 최종성과공유회
	워크샵에서 발표	• 중간 발표 (10월 20일) • 최종 발표 (12월 09일)

## 활동 과정

### ■ 1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2일
- 장소 : 오룡동 일원
- 오룡동의 면적 및 지정학적 위치와 지명조사



- “오룡”이라는 지명은 조선 후기 지도나 고문서에서 확인할 수 없음
- 1932년 옥구군 미면 둔율리가 군산부에 편입되어 오룡정으로 개편되면서 처음 등장하는 명칭
-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은 군산시의 동(洞) 지역 중앙부에 위치
- 주변에 신평동, 월명동, 선양동, 삼학동과 이웃하고 있는 주거 지역
- 삼학동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로 서해 대학이 있었지만 폐교된 상태로 현재 상권이 침체
- 군산시가 추진한 2단계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대상 지역
- 군산시 2단계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2009년까지 총사업비 305억 원을 투입하여 7개 지구인 금동, 송풍동, 오룡동, 삼학동 일원에 도시 기반을 조성
- 이 사업을 통해 오룡동을 비롯해 주변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해 각종 도시 기반 시설과 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
- 오룡동의 행정구역 변천과정 및 지형 조사
  -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은 옥구군 미면 둔율리 지역
  - 1932년에 군산부에 편입되어 오룡정이라 불림
  - 1946년에 군산부 오룡동으로 개칭
  - 1949년에 군산부가 군산시로 바뀌면서 군산시 오룡동으로 개칭
  - 2008년 2월 4일 행정동인 삼학동 관할의 법정동으로 개편
  - 오룡동의 지형은 대부분이 경사지로 되어 있으며 경사지에 있는 주택들은 노후화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고령화되어 노인들이 대부분 생활



## ■ 2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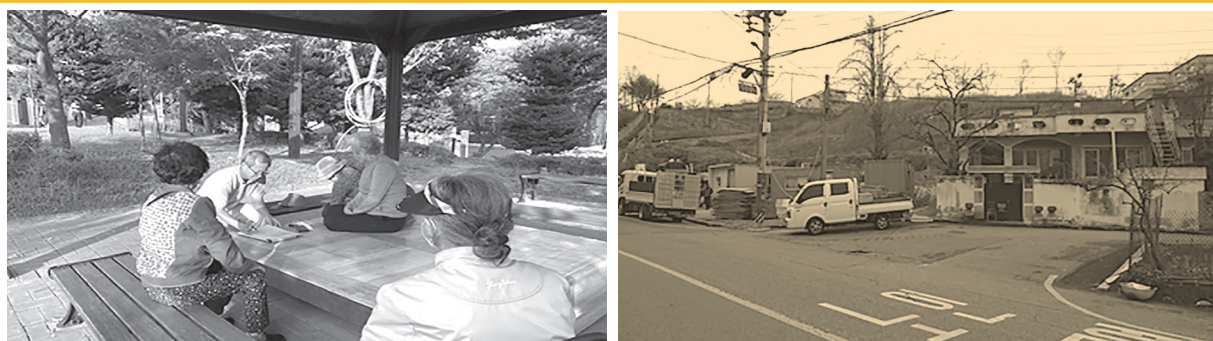
- 일시 : 2022년 9월 9일
- 장소 : 오룡동 일원
- 오룡동 주민 인터뷰
  - 음료수와 과일을 준비하여 오룡동 경로당 방문
  - 오룡동에 관한 이야기와 추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짐
  - 80세 이상, 30~40년 이상 거주자를 중심으로 인터뷰
  - 홍경자(84세) : 40년 이상 오룡동 거주



홍경자님의 사진첩을 통해 본 오룡동

## ■ 3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16일
- 장소 : 오룡동 삼오경로당과 주변



삼오경로당

오룡동 산비탈

- 삼오경로당에서 40년 이상 거주한 김명자(82세) 할머니 인터뷰
- 1982년부터 거주
- 남편의 직업 때문에 전남 무안에서 이사 옴
- 이사를 왔을 때 오룡동에서 피난민이 국수 공장을 하셨다고 하심
- 국수공장은 10년 전에 없어짐
- 산등성으로 둘러싸여 있어 동네가 단절되어 있음
- 주변을 개발하여 건축물이 들어서는 중
- 골목길 답사 활동

## ■ 4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23일
- 장소 : 오룡동 삼오경로당



국수 공장 터에 세워진 아파트

오룡재에서 바라본 오룡동 주변

- 김명자 할머니와 주변 할머니들과 인터뷰
- 오룡동 서해 대학 길 건너 고지대에서 피난민이 허름하게 가내수공업 형태로 운영하던 국수 공장이 2개가 있었는데 인근 동네 사람들이 많이 이용
- 2010년까지는 국수 공장이 있었음
- 지금은 국수를 만들어 팔던 집들이 헐려 아파트 건축
- 60년 전에 군산의 호남제분 공장에서 밀가루를 도매로 가져와서 국수를 만들었는데 인기가 좋았음



## ■ 5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24일
- 장소 : 오룡동 삼오경로당



60년 이상된 주택



석축으로 이루어진 골목길

- 82세 최보순 할머니 거주기간 (35년) 1987년부터 거주
- 주변 사람들 남편들이 술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자녀교육을 등한시하고 그 당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으며 집에 화장실이 있는 집들이 별로 없어 공중화장실이 여러 개 있었음
- 엄마와 주부들이 생활력이 강하여 자녀 교육은 여자들이 억척스럽게 생활하여 가르쳤음

## ■ 6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30일
- 장소 : 서해경로당 및 오룡동 일원



최훈구 할머니



피난민촌의 흔적

- 최훈구 할머니는 93세로 피난민 21살 때 미군 배 LST선을 타고 군산에 오심
- 당시 오룡동, 삼학동, 흥남동, 구암동에다 수천 명의 피난민을 이주시켰음
- 당시 오룡동 산기슭과 밭에다가 수천 명의 피난민들이 천막과 가마니 같은 걸로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미군의 원조물자로 배급을 받아 생활하면서 장사를 하였음
- 주로 실, 바늘, 성냥 같은 간단한 생필품 정도의 물건들을 판매
- 60년대 서해 대학 앞에 고갯마루가 길이 뚫려 그 길로 명산 시장 다님
- 오룡동의 야산은 대부분이 밭이었고 평지는 논
- 인터뷰를 마치고 오룡동 위치를 확인하고자 답사

## ■ 7차 활동

- 일시 : 2022년 10월 7일
- 장소 : 서해경로당
- 고령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자리에 피난민이 운영하던 두부공장이 있었으며 그 자리에 마을 공동 우물이 있었음
- 피난민들은 호남제분 밀가루 공장에서 밀가루를 도매로 사와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국수를 만들어 팔았음
- 산마루에는 60년대 오룡동 성당이 들어서고 70년대는 서해대학이 개교

## ■ 8차 활동

- 일시 : 2022년 10월 14일
- 장소 : 삼오경로당



삼오경로당 입구



카디날 공장이 있던 위치



- 90세 정은연 할머니는 오룡동에서 태어나서 오룡동에서 평생을 살고 계심
- 1970년 새마을 운동 전에는 대부분 초가집이었음
- 새마을 운동 후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고 생활 여건이 조금 나아졌음
- 피난민 두가구가 국수 공장을 2개 운영하셨음
- 그 당시 도둑도 많았고 빨래줄에 걸려 있는 빨래도 많이 도둑맞았음
- 피난민들이 많이 살았고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살았음
- 동네 아주머니들은 주변에 있는 메리야스 공장과 카디날 공장에 많이 근무

## ■ 9차 활동

- 일시 : 2022년 10월 21일
- 장소 : 오룡동 금광공원 일대



공원 조성으로 허물어진 집터



금광공원

- 금광공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주변일대는 초가집과 슬레이트집이 대부분
- 도시정비사업 일환으로 130가구 집들이 철거되고 아름다운 도시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됨
- 금광공원 준공 이후 주변경관이 아름다워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하는 활력소가 되고 있음

## ■ 10차 활동

- 일시 : 2022년 10월 28일
- 장소 : 오룡동 일대



군산 노인회관 개축 중



피란민촌 정상에 들어선 요양원 건물

- 오룡동 일대를 돌아보며 마을이 쇠락해가는 현장을 보게 됨
- 군산시는 지속적인 도시정비 사업으로 오룡동 비탈의 환경을 개선
- 오룡동 고갯마루 주변에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준공되고 있음
  - 전북개발공사 고령자 아파트
  - LH 고령자 아파트
  - 노인 요양시설
  - 깨끗한 공원 시설
-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오룡동의 침체 된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활력이 넘치기를 소망함

# 2022 Gunsan City Culture

## II. 군산의 역사 문화 추적 활동

- 1 군산 시인의 시선으로
- 2 군산에서 촬영된 영화 속 장소 찾기
- 3 서수면의 설화
- 4 솟골 왕골 돛자리

# 1. 군산 시인의 시선으로

개요

조사자	김형순 · 유복금
조사 동기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군산이 낳은 시인을 찾아보고 그 시인이 군산을 배경으로 쓴 시의 현장을 찾아가 사진을 촬영</li><li>• 주옥 같은 시상을 떠오르게 한 아름다운 군산을 시민과 함께 공유</li></ul>
활동 개요	<div>컨설팅 받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li><li>• 문정현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li><li>• 문정현 전문위원과 전화상담</li></ul>
	<div>서수면 임피중학교와 임피역 방문</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 9월 13일, 9월 20일, 10월 1일, 11월 20일</li><li>• 활동 : 시가 쓰여진 현장에서 사진 촬영하기</li></ul>
	<div>인터뷰 활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 8월 31일, 9월 20일</li><li>• 활동 : 시인 인터뷰</li></ul>
	<div>문헌자료 조사</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8월 30일 ~ 11월 14일</li><li>• 시립도서관, 시인들의 시 읽어보기, 인터넷 검색, 군산대도서관</li></ul>
	<div>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 8월 23일 ~ 12월 07일</li><li>• 활동보고서, 워크샵, 중간성과공유회, 최종성과공유회</li></ul>
	<div>워크샵에서 발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간 발표 (10월 20일)</li><li>• 최종 발표 (12월 09일)</li></ul>

활동 과정

■ 1차 활동

- 일시 : 2022년 8월 26일
- 장소 : 군산시내 카페



- 활동 계획 수립
  - 인터뷰 내용 만들기
  - 시인 인터뷰
  - 군산이 낳은 시인과 군산과 관계 깊은 시인을 알아보기
  - 군산을 배경으로 한 시 알아보기
  - 문헌 조사 : 군산과 관계된 시인 찾아보기
  - 현장 조사 : 배경을 찾아가 촬영하기
  - 성과물 : 시와 이미지를 정리하여 보고서 만들기

■ 2차 활동

- 일시 : 2022년 8월 31일
- 장소 : 조촌동 최영봉 평론가 사무실
- 최영봉 평론가 인터뷰(64세, 남, 군산)



- 질문1.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옥서면 옥봉리에 출생해서 군산에서 중학교까지 지내다가 전주로 유학을 갔고 서울에서 직장생활 후 다시 군산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군산에서 문인 활동과 인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질문2. 시에 관심을 가지고 쓰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이었나요?  
대학교 3학년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 질문3. 군산의 대표적인 현대시인은?  
고현, 이병훈, 고은, 채규판, 문효치, 이복웅, 최영, 강형철, 최영봉, 김정수, 심호택, 정윤봉, 이양근, 백승현, 이경아, 전재복 시인이 있습니다.
- 질문4. 향토시인과 군산에서 태어났지만 타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유명해진 시인은?  
고은 시인은 청년시절에 서울로 갔었고 문효치 시인은 초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 갔다가 70대에 다시 군산으로 귀향했습니다.
- 질문5. 타지역에서 태어났지만 군산에 와 생활하면서 창작 활동을 한 시인은?  
최영 시은 고향은 순창인데 공무원으로 군산에 와서 살면서 꾸준한 창작 활동을 하였고 김봉열 시인은 고향은 임실인데 6살에 군산에 와서 현재까지 생활하며 꾸준한 창작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 ■ 3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6일
- 장소 : 사단법인 아리울역사문화
- 최영봉 평론가 인터뷰(64세, 남, 군산)
- 군산 출신의 시인과 군산을 배경으로 쓴 시 찾기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이병훈 '옥산'
  - 강형철 '해망동'
  - 문효치 '고향송'
  - 김광균 '산상정'
  - 채규관 시인 등
- 시를 찾아 그 시의 배경이 된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시와 사진, 작가의 간단 이력과 그 시를 선택한 이유를 간단하게 서술

### ■ 4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13일
- 장소 : 조촌동
- 전재복 시인 인터뷰(64세, 여, 군산)



#### 째보선창에 배 들어온다 | 전재복

조석으로 한 번씩  
황토물에 누런 베옷을 벗어 빼는  
서쪽 바닷가  
선잠 깬 어둠이 방파제를 어슬렁거린다

찰진 어둠을 벽벽 문지르며  
밤새 잠 못 들어 뒤척이던 물의 악보엔  
분질러진 음표들만  
오르락내리락 파도를 두들기는데  
멀리 점 하나,  
점, 점, 점... 커지더니  
만삭의 배 하나 몸 풀러 온다

서해 해풍과 우격다짐 끝에  
별처럼 파닥이는 멸치 떼 쓸어 담고  
꽃게 꾸꾸미 새우 박대  
휘몰아 돌아오는 고단한 돛대 위  
산티아고 노인의 낡은 깃발이 눈부시다  
고래가 아니면 어떡랴  
작은 저들이 하나씩 물고 온 별들  
저마다 윤슬로 반짝이며  
수련수련 교향악으로 출렁인다.  
흐벅진 해초로 엮은 밧줄에  
포박되어 온 붉은 해가  
환하게 하루를 풀어 산청産廳을 열 때쯤  
울컥울컥 몸을 푸는 만선의 배  
싱싱한 생명의 파닥임으로  
웁자하게 살아나는 선창

다시 불끈 아랫배에 힘을 주며  
희망을 순풍순풍 해산한다.

#### • 전재복 시인

- 1979년 교육부 주최 동화 은상
- 1992년 한국시 신인문학상
- 2020년 전북문학상

## ■ 5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20일
- 장소 : 나운동
- 강형철 시인 전화 인터뷰(67세, 남, 군산)
- 문효치 시인 전화 인터뷰(80세, 남, 군산)



- 군산이 배경이 되는 시 발굴
  - 김광균 '산상정'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채규관 '월명산 풍경'
  - 문효치 '남대리 엽서'
  - 강덕두 '금강 하구에서'
  - 김옥중 '수덕산'
  - 김정준 '하계포구'
  - 김철규 '선유도와 무녀도'
  - 전재복 '콩나물고개'
  - 조성돈 '오성산'
  - 조은희 '금강을 따라가며'
  - 송창재 '가창오리 군무 - 원나포에서'
  - 홍성 '은적사'

## ■ 6차 활동

- 일시 : 2022년 11월 1일
- 장소 : 선양동 및 둔율동 성당, 남내리 대밭, 해망동, 원나포, 하구둑, 선제리
- 시 속의 군산 모습 촬영
- 송창재 '가창오리 군무 - 원나포에서', 조은희 '금강을 따라가며', 홍성 '은적사', 김광균 '신산정', 문효치 '남대리 엽서', 김철규 '해망동은 지금'

### 가창오리 군무- 원나포에서 | 송창재

황혼마저 떨어진 밤으로의 길목에서  
동쪽하늘 멀리  
소나기구름 밀리는 소리 아득하다

그 소리 점점이 달려 와  
먹장구름이 하늘을 덮는다

틈틈이 보이는 작은 보석의 알갱이 사이로  
움직이는 수많은 공기구멍들이 송송하다

밀려오는 먹구름이  
소리치며 달려든다

순간 밀려  
산 너머로 들판으로  
서천으로 군산으로  
강 하늘에 비 한 방울 없어  
비품은 바람소리 오는지 올려 봐도  
마른 하늘에 검은 구름떼만 몰려다닌다

수 천 마리 무리들이  
부딪혀 떨어지는 애 하나없이  
몰려오는 끼적거리는  
합창 소리만이 온 하늘에 가득한 새다.



가창오리의 군무는  
해 진 하늘의 전율이요 황홀이다

• 송창재 시인

1954년 군산 출생

2017년 문학광장 수필부문 신인문학상



금강을 따라가며 | 조은희

핏빛 동백꽃 떨어져 수북  
강물 따라 벼꽃이 흐르고  
아리고도 푸른 강줄기를 끼고 가니  
삼라만상 고요하고  
묵언기도 제격이다

갈림길에 들어서  
흔잣말로 길을 묻고  
생각에 잠겨 강을 더듬으니  
실핏줄 같이 길에 뻗어 영킨  
가시덩굴이 귀찮다

바람이 불면  
대자연은 춤을 추고  
바다 같은 강의 노을  
바다에 있는데 강이라고 왜 없을까

다홍 보라 노랑빛깔 윤슬의 눈부심  
수줍은 하늘은 속내 숨기지 못하고  
뒤둥거리는 강물에 들켰다  
금강의 달 뜬 밤이 저문다

• 조은희 시인

문예운동 시등단



산상정 | 김광균

카네이션이 흩어진 석벽 안에선  
개를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가 날카롭다.  
동리는 발밑에 누워  
먼지 낀 삽화 같이 고독한 얼굴을 하고  
노대(臺)가 바라다 보이는 양관(洋館)의 지붕 위엔  
가벼운 바람이 기폭처럼 나부낀다.  
한낮이 겨운 하늘에서 성당의 낮 종이 굴러 내리자  
붉은 노트를 낀 소녀 서넛이  
새파란 꽃다발을 떨어트리며  
햇빛이 퍼붓는 돈대 밑으로 사라지고(...)

• 김광균 시인

1914년 개성에서 태어나 1993년 서울에서 눈을 감은 그는 가장 빛났던 청춘, 열여덟 살부터 스물네 살까지 전북 군

산에서 살았다. 설야, 외인촌 등 수많은 작품이 여기서 나왔다. 당시 군산은 국내에서 가장 변화한 도시 중 하나였다. 개성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나 열두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육 남매의 장남, 즉 가장이 된 그가 돈을 벌러 떠난 곳이 군산이었다. 1936년 4월 발표된 '산상정(山上町)'이다. 산상정은 1930년대 군산에 있던 지명으로, 현재 선양동을 말한다. 그의 시 중 유일하게 군산 지명이 나오는 시다. 시 속 성당은 군산 최초의 성당 '둔율성당'이다. 둔대(墩臺)란 평지보다 높직하게 두드러진 평평한 땅. 성당에서 걸어서 8분 거리에 있는 선양동 해돋이 공원에서 성당을 바라보면, 내리쬐는 햇살 속에서 성당이 눈부시게 빛난다.



남대리 엽서 (대발) | 문효치

대발에 올라갔다가  
조그만 새집을 발견했다

노란 무늬가 어깨에 박힌  
파란 새가 앉아 있었다

하도 예뻐서  
'내 새', '내 새'로 삼았다

가서 만져보고 싶었지만  
새가 놀랄까 싶어 멀리서만 보았다

가까이 가고 싶을 때마다

참고 참고 하다가

어느날  
이제 참는 것도 지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손을 뻗자  
새는 푸드득  
허공을 향해 날아 올랐다

영 영 가버리고 오지 않았다  
'내 새' 대신 빈 새집에  
슬픔을 담아 놓고 볼 수밖에 없었다

바람이 출렁이는 대밭 속에서  
슬픔 한 덩이 키우며  
유년을 보냈다

• 문효치 시인

1943년 7월 15일 전북 군산 출생. 동국대학교 졸업. 고려대 교육대학원 졸업. 1966년 한국일보 및 서울신문 신춘문에 당선. '신년대', '진단시'에서 동인활동. 시집 '무령왕의 나무새', '남대리 엽서', '계백의 칼' 등 10여 권, 산문집 '시가 있는 길' 외 3권이 있다. 동국문학상 수상. 펜문학상 수상. 천상병시문학상 수상. 육관문화훈장 수상.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장 역임. 주성대 겸임교수 역임. 현 계간 '미네르바' 발행인 겸 주간.



## 해망동은 지금 | 김철규

6.25전란의 흔적을 남긴 곳  
삶의 전장터 해망동은 어시장이다  
금강물은 거기까지 발을 적시고 간다

오색 깃발의 만선도 없다  
뱃사람들의  
해장국집 속 풀이도 추억처럼 가난하다

생선 비린내 실어 나르던  
옛 해망동거리는 추억은 남고  
수산시장 아줌마의 파리채가 가볍다

애꿎은 동백대교는 왜 바라보는가  
해망동바람 찬바람아  
이제 불티나게 춤추던 그런 깃발은 없다

## 선유도와 무녀도 | 김철규

40 여년 전 선유도와 무녀도에  
역사탐방 취재차 머문 적이 있었다  
산비탈 능선을 따라  
선유봉을 한참 바라보았다  
시선과 맞닿은 곡선에서  
한쪽의 그림과 같은 형상은  
서넛 노을에 취하게 하고  
산빛의 수묵에 취하게 했다  
이 섬에 가면저 섬이 부르고  
저 섬과 이 섬을 넘나들면  
그리움의 저 편에서  
세상사 이야기도 가꾸게 했다  
파도속에 맺은 섬사람의 그리운 정이  
무성하게 돌아나는 섬 섬 섬

• 김철규 시인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  
서울문학인 등단



## 은적사 | 홍성의

새벽 함박눈이 쏟아집니다  
가슴 한 칸을 채워오는 아련함에  
월명산의 추억속으로 걸어갑니다

수백 성상의 세월을  
온 몸으로 견뎌온  
은적사 팽나무 앞에 섰습니다

쏟아지는 겨울비를 피해  
굴뚝 처마 밑을 파고드는  
차가운 연가 한 곡조  
정수리를 찌르듯 파고 듭니다

대웅전만이 거꾸로 세월을 세고  
팽나무의 딱따구리는 외로운 몸짓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천왕들의 진중한 인상 속으로  
피어나는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



부처의 자비만이 담벼락 낙서로 남았습니다.

지천으로 피어났던  
천 개 금낭화의 꿈들이  
울림으로 노래하면  
어느새 천지는 부처의 미소로 가득합니다.

천 번의 불사  
천 개의 돌을 골라 절을 새기고  
천방사로 갈음하여 지었다는  
소정방의 금석맹약

새로운 천년의 꿈을 기약하며  
어디선가 들려오는 극락 세상  
모음조의 노래소리가  
고향 밤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 흥성의 시인  
  군산고등학교 졸업  
  현 군산남초등학교 교장



■ 후기 : ‘군산이 낳은 시인의 시선으로’를 돌아보며

우리 지역 곳곳에 역사와 의미가 있는 배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지내는 많은 것들이 있다.  
동네문화추적단이 되어 우리 지역을 노래한 시인과 우리 지역을 그린 시를 알게 되어 보람을 느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뜻깊은 대상들을 발굴하여 우리 군산이 시민들의 스토리로 가득 채워지길 바란다.

## 2. 군산에서 촬영된 영화 속 장소 찾기

### 개요

조사자	김해경 · 이미숙	
조사 동기 · 목적	• 군산은 도시자체가 세트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영화 촬영장소로 인기가 많아 영화에서 군산의 여러 곳이 배경으로 등장 • 영화에 나오는 장소의 사진과 함께 영화의 정보를 결합하여 군산만의 자료로 기록	
활동 개요	컨설팅 받기	•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 • 문정현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 • 문정현 전문위원과 전화상담
	현장 방문	• 일시 : 10월 4일, 10월 14일, 11월 20일 • 활동 : 관광객 인터뷰
	인터뷰 활동	• 일시 : 9월 1일, 11월 20일, 11월 22일 • 활동 : 영화가 촬영 된 장소 답사 및 촬영
	문헌자료 조사	• 일시 : 8월 30일 ~ 11월 20일 • 시립도서관, 인터넷 검색, 영화 보기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 일시 : 8월 23일 ~ 12월 07일 • 활동보고서, 워크샵, 중간성과공유회, 최종성과공유회
	워크샵에서 발표	• 중간 발표 (10월 20일) • 최종 발표 (12월 09일)

### 활동 과정

■ 1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1일
- 장소 : 사단법인 아리울역사문화
- 군산 지역에서 영화를 400여 편을 촬영했으며 70~80년대는 군산에 영화관이 많아 상영하는 곳이 많았음
- 군산시립도서관, 군산대 평생학습 운영자료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관련된 자료를 활용



### 군산극장의 역사와 공연과 상영 주제들

군산극장(우일씨네마)의 역사를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군산의 역사를 다각도로 조망할 수 있었다. 극장이 설립되어졌다고 추정되는 년도에서부터 건물의 위치와 건물주의 변화, 그리고 극장에서 공연되어지고 상영 되어진 내용들의 다양한 주제를 통해 군산극장이 문을 닫기 전까지의 경제의 변화와 시사와 정치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일 측면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는 기록의 부재와 각 매체와 구술 내용의 다른점 때문에 사실을 규명하기에 어려움이 따랐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99년 군산의 개항과 함께 일본의 유랑극단과 이동식 영사기를 갖춘 이동 극장이 들어와 공연과 상영의 공간으로써 군산좌가 개관된다. 호남선 철도지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1914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그 위치는 죽성동 축협 앞(동광한의원 뒤)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925년에 난 화재로 인해 1926년에 현재 개복동7-1번지로 이전한다.

군산극장의 일본인 소유자는 박주일씨의 증언에 따르면 군산극장 옆에서 전당포를 운영했었고 재력을 바탕으로 구)군산시청에 걸쳐 있는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해방이 되자 일본인 소유자가 떠난 자리는 공동관리를 하다가 군산극장의 간판을 그렸던 백남준이 주식회사를 만들어 청과물시장 사장이었고 구루마 바퀴공장을 운영하던 김봉희를 사장으로 영입한다. 6.25 때에는 군산에 인민군이 들어오면서 부르주와라는 낙인이 찍혀 고생을 하다가 1.4후퇴 때 작은 상선을 타고 피난을 가다가 배가 침몰되어 사망한다.

그 후 동생인 김봉원이 사장역할을 맡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1950년 초반에 고려제지 사장이었던 김원전이 잠깐 소유주가 되었었고 1955년 육복술, 그리고 백정흠이 맡고 있는데 대한상이용사회(현 대한 상이군경회)가 운영권을 차지하려다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백정흠이 이기고 1965년까지 대표자리를 맡는다. 백정흠이 운영하던 대성메리야스 공장이 망하면서 군산극장 사환으로 일하던 박주일씨가 1965년부터 대관자로서 극장을 운영한다.

1971년에는 박주일은 실소유주가 된다. 1973년과 1974년 사이에 군산에 있는 4개의 극장 중에 3개의 주인이 된다. 1971년부터 쿼터제(할당제) 실시로 영화의 수입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80년대 수반에는 각 가정에 컬러tv가 보급되면서 관객이 끊기고 IMF 위기도 한몫하고, 전국에 고속도로가 뚫릴면서 팔도관광을 다니려고 극장을 외면한다. 자구책으로 소극장을 개관하지만 비디오방의 출현으로 인해 소극장도 망한다.

2001년부터는 회생을 위한 전체적인 보수와 확장작업이라는 모험을 시작하지만 신도시의 개발과 구도심의 공동화현상 그리고 거대한 체인점인 멀티플렉스관이 수송동에 들어서면서 2007년에는 문을 닫는다.

건물이라는 공간도 유기체처럼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임을 알 수 있었던 조사과정이었다. 사람들을 모이게 했던 주제들 또한 다양하였고 특히 일제강점기 기간에는 전국 어느 대도시에도 비해 뒤 떨어지지 않는 다양하고 고급스런 문화의 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이었음을 근거자료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물론 극장의 역기능적인 부분을 지적하자면 의도 되어진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교육의 장이라는 기능도 있었을 것이다.

판이라는 장으로써 공연과 참여의 공간이 사라진 후 건물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군산시민들이 찾아가는 공간이 되었던 그리고 의사소통의 장으로써 역할을 담당하였던 군산극장이 시대 흐름 때문에 역할을 멈추고 있다.

### ■ 2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1일
- 장소 : 군산시 일원
- 군산에서 촬영한 영화와 장소 조사



### 군산에서 촬영한 영화들의 장소

- 타짜 : 내항 일원 / 도선장 / 부잔교 / 꾀보선창가 / 신흥동 일본식 가옥
- 장군의 아들 : 월명동 일원 / 동국사길 / 부잔교 / 월명공원
- 전설의 주먹 : 동산중 일원 / 말랭이마을 / 해망굴 / 홍천사 / 빈혜원
- 마파도 : 부잔교 / 도선장
- 소년, 천국에 가다 : 해망굴 입구 / 해망동 일원
- 백자의 사랑, 조선의 흠이 되다 : 신흥동 일원 / 군산세관
- 박하사탕 : 구군산의료원 / 군산서초교 / 홍천사 / 월명공원
- 신세계 : 내항 일원 / 빈혜원
- 마더 : 신흥동 말랭이마을 / 오룡동 일원
- 용서는 없다 : 군산내항 / 금강하구둑 / 새만금방조제 / 철새조망대 / 채만식문학관 / 5부두 폐공장
- 오래된 정원 : 군산서초교 / 신흥동 말랭이마을 / 해망굴
- 아저씨 : 군산문화문구 서점 / 문화동 / 오룡동
- 화려한 휴가 : 월명동 일원 / 구군산의료원/군산시 대야면 일원/해망굴/영화동
- 최종병기 활 : 비응도 갈대숲 / 새만금 일원
- 말죽거리 잔혹사 : 동국사 입구 / 영국빵집
- 변호인 : 내항 폐공장 / 둔율동 성당 / 전복외고 / 해망동 일원
- 8월의 크리스마스 : 초원사진관
- 친절한 금자씨 : 군산교도소



### ■ 3차 활동

- 일시 : 2022년 10월 4일
- 장소 : 원도심 일원
-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인 초원사진관 방문객 인터뷰
- 대상 : 배정기(62세, 여), 군산 나운동



- 질문1. 팔월의 크리스마스를 보셨는지요?  
네 보았어요. 심은하 팬 이에요.
- 질문2. 영화에서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나요?  
초원 사진관에서 주인공들이 생각나요.
- 질문3. 초원사진관 가보셨나요?  
친구랑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건물 안에도 아기자기 꾸며 놓아서 영화의 장면들을 추억할 수 있었어요. 거리도 이쁘고 거닐면서 예전보다 아기자기한 가게들도 많아서 천천히 거닐면서 친구랑 많은 추억 이야기도 하면서 골목을 걸었습니다. 지금 길도 거닐만 하지만 상가들도 더 활성화되었으면 해요.
- '8월의 크리스마스'로 초원사진관은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영화를 추억하며 초원사진관에서 사진도 찍고 군산의 원도심을 걸으며 군산을 관광하고 있다.

### ■ 4차 활동

- 일시 : 2022년 10월 14일
- 장소 : 문화문방구
- 영화 '아저씨' 현장조사와 인터뷰
- 대상 : 문화문구 사장(86세, 남), 군산거주 41년



- 질문1. 사장님~ 이곳이 영화 아저씨를 촬영한 곳이 맞나요?  
네, 이 문구점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 질문2. 사장님 이곳에서 사진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41년 되었어요.
- 질문3.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나요?  
원빈이 일본가서 이야기를 했나, 일본에서도 와서 영상(유튜브)를 찍어가기도 했어요.
- 영화 '아저씨'는 2010년 국내 개봉작중 흥행 1위를 한 대한민국 범죄 액션 영화이다. 경찰서에 가기 전 정소미(김새론)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사주기 위해 방문한 문방구 앞에서 정태식(원빈)이 포옹과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군산 문화초등학교 앞 문화문구점에서 촬영하였다. 영화 '아저씨'는 인도, 미국에서 리메이크도 되었으며 일본에도 수출되어 일본의 원빈 팬들이 문화문구를 찾아와서 유튜브 촬영을 하기도 하였다. 문화문구점은 영화의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 ■ 5차 활동

- 일시 : 2022년 11월 20일
- 장소 : 비응도 갈대숲, 새만금 일원
- 영화 '최종병기 활' 현장조사와 인터뷰
- 대상 : 이주명(46세, 남), 군산거주 14년4년



- 질문1. 군산에서 촬영한 영화들이 많은데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타짜, 초원사진관 찍은 8월의 크리스마스만 알고 있습니다.
- 질문2. 비응도와 새만금일원에서 촬영한 최종병기 활을 보셨나요?  
그 영화 잘 봤습니다. 활의 후손답게 잘 쏘더라구요. 저도 박진감 넘치게 봤습니다.
- 질문3. 군산 영화 테마로 바라시는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산에서 영화 촬영 한 게 많다고 하니 여행 테마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면 군산도 활성화 될 듯 합니다.
- 영화 '최종병기 활'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추격전을 다루는 영화로 2011년 국내 개봉작 중 흥행 1위를 하였다. 군산 새만금과 비응도 갈대숲 일원에서 촬영을 하였다.



6차 활동

- 일시 : 2022년 11월 20일
- 장소 : 군산 일원(은파호수공원, 경암철길, 신흥동, 비응항, 군산시외버스터미널)
- 영화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현장조사와 인터뷰
- 대상 : 박경숙(50세, 여), 군산거주 50년



- 질문1. 군산에서 촬영한 영화들이 있는데 보신 영화가 있을까요?  
8월의 크리스마스 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 질문2. 2018년 군산배경으로 박해일,문소리주연 거위를 노래하다 아시나요?  
여기서 촬영했다고 그때 엄청 이야기 했었어요. 언제 개봉하는지는 몰라서 못봤네요. 한번 볼게요.
- 질문3. 군산 영화 테마로 바라시는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산 촬영한 영화 중에도 이쁘고, 사랑스러운 영화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 영화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는 2018년 군산 여행을 하고 있는 남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이다. 군산의 골목과 바다 등 군산의 풍경을 촬영 장소로 담고 있다.

7차 활동

- 일시 : 2022년 11월 20일
- 장소 : 군산 원도심 일원



- 영화 ‘소년, 천국을 가다’
  - 2005년, 감독 윤태용
  - 촬영지 : 해망굴 입구 및 해망동 일원

- 13세 소년 네모의 꿈이 현실로 실현되는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년, 천국을 가다’는 군산에서 시계포와 만화가게가 있던 해망굴 입구와 해망동 달동네에서 일부 촬영

영화 ‘화려한 휴가’



- 2007, 감독 김지훈
- 촬영지 :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대야면, 해망굴, 구군산의료원
-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배경을 다룬 영화로 계엄군의 진압 장면을 월명동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건물이 있는 사거리에서 광주 문화극장을 재현하여 촬영.
- 그 외 군산 외곽지역에서 계엄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장면이 촬영

영화 ‘전설의 주먹’



- 2013년, 감독 강우석
- 촬영지 : 동산중, 신흥동 말랭이마을, 해망굴, 흥천사, 빈혜원
- 전설의 주먹들을 찾아 직접 대결시키는 방승을 소재로 한 영화로 신흥동 말랭이마을 등에서 촬영



영화 '오래된 정원'



- 2007년, 감독 임상수
- 촬영지 : 군산서초교, 신흥동 말랭이마을, 해망굴
- 학생 운동으로 도망 중이던 현우(지진희)가 서울로 올라왔다가 경찰에 잡히는 장면이 촬영

8차 활동

- 일시 : 2022년 11월 23일
- 장소 : 군산 원도심 일원
- 영화 '마파도', '신세계', '타짜' 현장조사

영화 '마파도'



- 2005년, 감독 추창민
- 촬영지 : 부잔교, 도선장
- '마파도'는 군산역 근처 다방 아가씨 장미가 로또를 가지고 잠적하면서 시작되는 영화로 군산내항 부잔교와 도선장에서 촬영

영화 '신세계'



- 2012년, 감독 박훈정
- 촬영지 : 군산교도소, 군산내항, 빈혜원 일원
- '신세계'는 느와르 영화로 영화 속 부둣가 창고 앞 장면을 빈혜원 일원에서 촬영

영화 '타짜'



- 2006년, 감독 최동훈
- 촬영지 : 신흥동 일본식가옥, 내항 등 원도심 일원
- '타짜'의 주인공인 고니의 수련 장면은 신흥동 일본식 가옥에서 촬영되었고 고니와 짝귀의 대결 장면은 부잔교에서, 격투신은 빈혜원에서 촬영

### 3. 서수면의 설화

개요

조사자	이하범 · 이정란	
조사 동기 · 목적	• 서수면 거주 주민으로 서수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 • 서수면 원관원마을 은행나무 설화와 고목제, 수시제의 용에 관한 전설, 하용전 마을의 암바위 · 솥바위의 이야기에 대하여 추적	
활동 개요	컨설팅 받기	•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 • 문정현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 • 문정현 전문위원과 전화상담
	현장 방문	• 일시 : 10월 10일, 11일, 11월 20일 • 활동 : 설화와 관련 된 장소를 찾아가 촬영을 함
	인터뷰 활동	• 일시 : 10월 10일, 11월 11일, 17일, 19일 • 활동 : 마을 주민 인터뷰
	문헌자료 조사	• 일시: 8월 30일 ~ 11월 30일 • 시립도서관 방문, 신중동국여지승람, 옥구읍지, 군산시사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 일시 : 8월 23일 ~ 12월 07일 • 활동보고서, 워크샵, 중간성과공유회, 최종성과공유회
	워크샵에서 발표	• 중간 발표 (10월 20일) • 최종 발표 (12월 09일)

활동 과정

■ 1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19일
- 장소 : 사단법인 아리울역사문화
- 서수설화를 현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서수 용 관련 마을이름 및 관련 설화 수집



■ 2차 활동

- 일시 : 2022년 10월 16일
- 장소 : 서수면 일대
- 솥바위 · 암바위 이야기 인터뷰
- 대상 : 문병준(87세, 남), 군산 87년 거주
- 서수면 설화 현장조사 및 자료조사



- 질문1.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수면 용회 부락에서 1936년에 태어나서 시의원도 하면서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활동을 했었어요.
- 질문2. 서수면에 설화에 대해 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용성리가 본래 용두산(용에머리)이라고 했고 내가 어릴적에 큰묘(말무덤)가 있었는데 추정컨대 너무도 오래되어 알순 없어도 아마 지역에 지배자의 묘같아. 모두들 그리 말했으니까 동북쪽에 있었지. 그도 그럴 것이 해방 후 도굴 당했다 했으니까. 그리고 용두산 도로변에 양수장이 있었고 300m 올라가면 용이 승천한곳이여. 그곳 양수장은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았고 그당시 내가 15살였지 그곳엔 장어가 무지 많았고 장어를 잡을 수 있는 굽어진 작살이 우리집 뿐이 없어 장어를 양동이에 많이 잡아와서 배고픈 일꾼들에게 고아서 몸보신을 시켰었어요. 용회리(용의 허리)라 하고 용전리는 용이 놀던 발이다 그랬지. 서수사거리에 서낭당(서낭댕이)이 있었지 아이 마을(아리댕이)라 했어. 서낭당은 옛날 과거시험 보러 가는 길목에 서낭당이 있어 이곳을 들러 치성을 드리고갔지 호살리 뒤에 가자터(가자동) 옆에 장터가 있었고 나포 쪽으로 가면 곰개나루를 건너서 서울로 갔다고 들었지. 부모님으로 부터 그렇게 전해 오고 있어요.
- 질문3. 선배님! 또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여기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 번창하고 넓어지니깐 반대편의 시장이 또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신 시장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구시장이라고 부르게 된 것예요.
- 질문4. 60여년 계속해서 쌀장사를 하고 계신 사명감 같은 것도 있나요?  
독자개 마을 임피중학교 맞은 편에 까치샘이 있었지. 이 샘을 마을 분들은 신성하게 여겼지 언제나 물이 마르지 않았고 까치샘에서 나오는 물로 면적5~6천평 농사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물이 좋으면 그 농사 지은 쌀을 일본 천왕에



게 바쳤다는거여. 그 버를 정미해서 보냈는데 정미 한 쌀을 대두 병에 넣어 흔들어서 광을 내서 보냈다네. 그 당시 그 일을 한 분이 임피중 급사로 있었던 김창배란 사람이 말해주었지. 그리고 까치샘에 고마움은 또 있지. 서수리 사람들이 그 물로 목욕을 하면 부수럼이 났다하여 신성시 하였으며 남자는 10시 이전 여자들은 10시 이후로 목욕을 하는 것이 불문율로 내려왔어. 그리하여 까치샘은 신비하다 하늘이 내린 물이라고 전해 내려와요.

• 질문5. 그 외에 알고 계신 이야기는 없나요?

내가 아는 것은 암바우에 공을 들이면 아들을 낳은 일이 실제로 있었어. 아이마을, 즉 아리타이 사는 여인이 혼인하여 오래토록 아기를 못낳아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암바우에 치성을 들였더니 기적적으로 사내아이를 낳아 소박을 면했고 그리하여 아이의 이름도 바우라 이름을 지었지. 성이 아마 김씨였던가, 실제 인물인데 지금은 기억이 잘 안나. 암바우가 사라지고 동네 청년이 해마다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 찾아다 놓았더니 그 후엔 청년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지. 그 뒤에 또 사라졌다고 들어.

• 그 잃어버린 암바우를 제가 수 년 동안 수소문 끝에 찾았어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작하고 스토리텔링하여 여행 투어에 이야기 만들려고 찾았답니다. 지금 아이마을 경로당 근처 태양광 집에 방치되어있어요. 지금이라도 암바우와 수바우를 나란히 제자리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겠습니다.



오랜세월있었던 암바우



서수면 옛 서낭당자리

### ■ 3차 활동

- 일시 : 2022년 11월 11일
- 장소 : 서수면 관원리 원관원마을
- 관원리 은행나무 이야기 인터뷰
- 대상 : 손창식(77세, 남), 군산 77년 거주



• 질문1. 이 동네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나는 여기서 태어나 계속 여기에서 살았어요. 그저 여기 토박이인 셈이지요. 우리 선조분들도 여기서 계속 사셨어요.

• 질문2. 고목제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세요.

관원리 은행나무 고목제는 원관원 마을 뒤에 있는 보호수에 매년 봄 제를 지내 마을의 안녕과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하며 주민들과 외지에 나가 있는 이 마을 출신 모두에 행복과 건강을 비는 제사입니다. 이 때는 주민과 이 마을 출신으로 외지에 타향살이하는 이들을 모두 초대하여 마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있어요.

• 질문3. 언제부터 고목제를 지내게 되었나요?

고목제를 지낸지는 약 20여 년이 되었어요. 옛날에 나무속에 든 족제비를 잡기 위해 한 주민이 고목에 불을 놓았는데 그때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수면 소방대도 출동하여 불을 끄느라 난리가 났었지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은행나무는 속이 비어 있는 상태로 가슴높이 둘레가 약 4~5미터 되었어요. 1982년도에 보호수로 지정되었고 마을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았는데 가지가 옆으로 20여 미터 뻗어나가 우람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만 그 밑에 사는 분이 가지가 부러지면 집이 부서지게 생겼다고 시에 민원을 제기해 집 쪽의 나뭇가지를 잘라내니 그 뒤로 나무가 시름시름 죽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은행나무가 죽고 난 후에 마을에 나쁜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고목제를 지내기 시작했지요. 지금 있는 나무는 속이 빈 공간에 은행이 떨어져 자연 발아 해 어연 가슴둘레가 3미터 정도로 커졌는데 20여 년전 마을 회의에서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 고목제를 지내기로 결의해 그때부터 2019년까지 한해도 빠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최근 3년간은 코로나19로 주민들이 모일 수가 없어 고목제를 지내지 못했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된다면 내년부터는 고목제를 다시 지낼 수 있기를 주민들은 고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목제를 모신 후 마을 경로당에 모여 뒷풀이를 하며 주민들 간에 우애와 화합을 다지는 행사를 하면 끝이 나지요.

• 질문4. 그 외에 이 마을에 내려오는 이야기나 자랑거리가 있으신가요?

아래 월운정 마을은 현감이 발령받아 임피로 부임하며 첫발을 내딛는 곳이며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갈 때 마지막 발을 딛는 곳도 이 마을인데 과거에는 이방들이 현감을 맞이하고 배웅하는 정자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그 흔적이나 장소도 모르니 안타까울 따름이고 정자 이름이 일운정이라 하였는데 그곳 지명이 월운정이라 내려오고 있어요. 원관원 마을에서 아들을 분가시킬 때 운원마을로 분가를 시켜 원관원마을은 큰동네라고 부르고 했어요. 그리고 정월 대보름 때 우리마을에서는 고 이병희 선생께서 풍물을 가르켜 주어서 풍물도 치고 원관원, 신관원 마을을 돌며 근림도 하고 대보름 행사를 거창하게 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이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 ■ 4차 활동

- 일시 : 2022년 11월 16일
- 장소 : 서수면 마룡리 원룡귀마을
- 용의 전설이 있는 수시제 이야기 인터뷰
- 대상 : 노성식(93세, 남), 군산 93년 거주





용의 전설이 있는 수시제



인터뷰 장면

• 질문1. 이 마을엔 언제부터 사셨어요?

조상 대대로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살았지.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태어나 쫓 살고 있고, 내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 마을에서 나서 구십사 년을 쫓 살아왔으니 아는데로 이야기 해줄께.

• 질문2. 원용귀마을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것이 있나요?

언제부터 우리 노가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지는 나도 모르지만 이곳에 터를 잡고 살다가 자식들을 중용귀, 신용귀마을로 분가를 시켜서 큰 동네가 되었어. 돌아 가신 노공식씨 집안이 잘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땅을 내놓아 마룡초등학교가 생겼지.마을에 귀룡청수의 명당자리가 있다는데 그 자리가 노공식씨의 집뒤야 그래서 집안 조상들의 선영을 그리로 이장을 하였지. 거그서 보면 수시제가 바로 보이는데 그 방죽물이 청수에 해당한다네. 옛 어른들의 말로는 수시제 때문에 명당의 발복을 받게 될거라고 하더구만.

• 질문3. 수시제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없나요?

그머나 옛날에 수시제 그 아래 넓은 들이 그 물로 농사를 지었어. 70년대 초까지 요맘 수시천에는 참게나 물고기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은 농지정리가 되고 농약 때문에 물고기씨가 말랐지만 송사리부터 붕어 잉어 장어 미꾸라지 등이 부지기수로 있었지. 어쨌든 수시제에 용이 살았는데 어느 한가 용이 나가고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마을에서 풍장을 치고 근림을 하여 제물을 장만하여 정성껏 기우제 겸 하천제를 지낸 후에 나갔던 용이 들어왔다구해 그 뒤로 풍년이 들고 잘 살았다. 그래서 용귀리라고 부르기도 한다.그리고 이건 내가 직접 겪은 일인데 도깨비불이라고 있었지. 날 꺾으려고 하면 저 넓은 들에 도깨비불들이 버거리처럼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여 무섭기도 하였지. 그전에는 소를 잡지 못하게 했어.해방 직후 술메기 때 귀중이네 집에서 새벽에 몰래 소를 잡기로 하였는데 마룡초등학교 뒤편에 아릅디 소나무가 죽었는데 그때는 연장이 없어 톱 같은 그래서 화목으로 쓰려고 베려해도 못비고 있는거야. 우리 큰집에 마침 큰 톱이 있어 그걸 빌려다 새벽에 남들 눈에 안 뵈는 때 비는데 커다란 혼불인가 도깨비불인가 하는 것이 저 너머에서 넘어오더니 상구씨 집으로 들어갔다가 한참있다 나오더니 장곤리 공동 묘지쪽으로 나가더라구. 그 뒤로 삼일 만에 앞에서 말 한데로 귀중이네 집에서 소를 잡는데 소피가 몸에 좋다구 하니 상구씨가 소피를 먹었는데 목에서 소피가 엉기었는지 그 분이 숨을 못 쉬고 돌아가시었어. 그런 일이 있었지.

■ 5차 활동

- 일시 : 2022년 11월 9일
- 장소 : 서수면 축동리 신장마을
- 팽나무와 구렁이 이야기 인터뷰
- 대상 : 김갑순(64세, 여), 군산 64년 거주



인터뷰 장면



구렁이가 나온다는 장독대



팽나무가 있던 자리

• 질문1. 마을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축동리 신장부락의 고김중섭씨 집은 근동에서 부잣집으로 소문나 머슴을 4~5명씩 두고 살았는데 논이 아흔아홉마지기였다고 합니다. 그의 집은 푸른색 기와집이었는데 동네사람들은 '청와대'라 칭하였습니다. 김중섭 할아버지는 목소리도 우렁차서 별호가 '와가리'라고 동네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저는 김중섭 할아버지 손녀입니다.

• 질문2. 이 집이 예전에는 청와대라 불리웠는데 기와가 바뀌었네요.

기와가 오래되어서 비가 오면 여기저기 새는데 새는 곳을 알 수가 없고 기와가 너무 무거워 십여년 전에 지붕을 새로 했어요.

• 질문3. 집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우리집을 근동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이었죠, 저쪽 집옆에 큰 참나무와 팽나무가 있었는데 참나무는 장정 서너명이 안아야될 만큼 되었고 팽나무는 그보다 조금 더 컸어요. 그런데 거기에 큰 구렁이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눈에 잘 띄지는 않았는데 특히 흐리고 우중충한 날씨에 일꾼이 보았다는 말들을 하였어요. 어떤분은 구렁이의 머리에 귀의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고도 하고 구렁이의 귀가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때는 내가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업이 사람의 눈에 띄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들 하였는데 잘 모르겠고 하여간 그런가 보다 하였지요. 십여년 전에 팽나무와 참나무가 속이 비어 넘어질 염려가 있기도 하고 가지가 길게 옆으로 뻗어와 기와집 지붕 위로 늘어져 낙엽이 떨어지면 물받이가 막히기도 하 고하여 나무를 베어내기로 하였어요. 누군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나무를 베어내 면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 그때 백육십만원인가 받았는데 참나무는 속이 너무 비어 가져가지를 않고 팽나무만 가져갔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지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가 비탈이져 석축을 하려고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데 구렁이가 나온거예요. 교묘하게 포크레인 바가지날 사이에 끼어 구렁이는 다치지 않았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깜짝 놀라 운전대에서 내려와서 구렁이가 산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잘 가시라며 큰절을 하더라고요. 그때 나도 처음 봤어요. 몸통이 막걸리병만 하더라고요. 그 뒤로 그보다 조금 적은 구렁이가 한 마리 더 나왔는데 역시 포크레인 기사가 정중히 대하여 귀한 업을 보았다며 그 후로는 일을 신중하게 하고 조심스럽게 하였어요.



6차 활동

- 일시 : 2022년 11월 17일
- 장소 : 서수면 마룡리 노순례씨 자택
- 황구렁이 이야기 인터뷰
- 대상 : 노순례(77세, 여), 군산 77년 거주



- 질문1. 수시제에 대하여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수시제가 아니라 내가 알기로 수륙제라고 알고있어. 또 용고리방죽이라고도 하지. 그 전에 수륙제에 매년 사람이 빠져 죽었어. 매년 1~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지. 방죽 옆에 방죽을 파낼 때 쌓아둔 흙이 둔덕처럼 있었어. 그 땅은 돌아가신 중기 양반이 지어먹었지. 그 옆에 둑처럼 깊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났지.방죽 옆에 주홍로라는 분이 살았는데 그 부인이 무당이었지. 꿈자리도 사납고 또 매년 방죽에서 인명피해도 나고 하니까 동네를 돌아다님서 시조(시주)를 받아서 수륙제를 지냈지. 수륙제는 용궁제 또는 용왕제라고도 해. 다 같은 말이야. 그렇게 수륙제를 지내고 나서 사람이 빠져죽지 않았어.그런데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넋을 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혼이 천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다가 말썽을 일으켜. 또 사람이 빠져죽는다고해 .그런데 나는 넋을 건지는 걸 한번도 본적이 없어.
- 질문2. 넋은 어떻게 건지는 거예요?  
밥그릇에 죽은 사람의 부적을 써놓고 쌀을 가득 부어 뚜껑을 닫은 후, 베로 칭칭 감아 물에 던져 넣고 굿을 하고 그릇을 건져 열어보면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밥그릇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네. 그러면 넋을 건졌다고 해. 그 일을 할 때면 무당이나 굿에 관여하는 사람은 밥그릇을 만지지도 않아. 다른 사람들이 하지.
- 질문3. 그 전에 어른들이 용고리 방죽에 용이 살아다고 하던데요.  
어려서 들은 얘기로 용고리 방죽에 용이 많이 올라갔다고허 그런데 용이 올라갈 때 임신한 부인이 보면 용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지금은 농지정리가 되고해서 방죽 독 밑으로 큰길이 나있지만 그전에는 방죽독이 임피에서 황등가는 큰 길이었어 학생들도 마룡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리로 다녔지. 그리고 방죽 독에 버드나무가 있잖허 거기에 구렁이가 살고 있으니 그 나무는 절대 비면 안돼 그러면 주위 마을에 재앙이 올거야. 구렁이는 내가 똑똑히 봤어 황구렁이야.

4. 솥골 왕골 돛자리

개요

조사자	송정이 · 조흥구	
조사 동기 · 목적	• 솥골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1960년후반부터~1980년후반기 까지 전성기였던 왕골돛자리의 맥이 끊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과 임금님께 진상했던 돛자리 마을을 외부에 알림 • 왕골 돛자리 유래 찾기 • 왕골 돛자리를 하였던 현존 하시는 분을 찾아서 인터뷰 및 사진 확보 • 돛자리를 찾기 (도구:돛자리를, 바다,잣대,뚝대 등) • 재현 가능한지 확인 (남겨진 왕골찾아보기) • 마을 문화 만들기 위해 동네에 작은 박물관은 설립 계획 수립	
활동 개요	컨설팅 받기	•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 • 문정현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 • 문정현 전문위원과 전화상담
	현장 방문	• 일시 : 11월 22일 • 활동 : 전라남도 함평에서 문화재가 된 왕골돛자리 견학과 함께 사진 자료 수집
	인터뷰 활동	• 일시 : 9월 22일, 23일, 25일, 11월 22일 • 활동 : 마을 주민 인터뷰
	문헌자료 조사	• 일시: 8월 30일 ~ 10월 14일 • 군산시립도서관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 일시 : 8월 23일 ~ 12월 07일 • 활동보고서, 워크샵, 중간성과공유회, 최종성과공유회
	워크샵에서 발표	• 중간 발표 (10월 20일) • 최종 발표 (12월 09일)

활동 과정

1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19일
- 장소 : 사단법인 아리울역사문화

- 인터뷰 및 수집 및 관련 자료 조사 계획 수립
  - 마을 주민 인터뷰
  - 돗자리를 등 장비 조사
  - 문헌 조사



## ■ 2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19일
- 장소 : 사단법인 아리올역사문화
- 솥골마을 및 왕골돗자리 조사

솥골마을은 그 근동 12개 마을 아울러 솥골이라 부르며 그중에 원주곡 마을이 가구수도 많고 한 마을이지만 이름도 아랫뜸 대추 밭, 장동, 구억터, 윗상골, 산발말 등 물매동네가 크다보니 도란도란 있는 이름이 있는 재미있는 마을이다.

지금은 돌아봄 - 집집마다 넓은 뜰쪽 정원이 있다고 하여 돌아봄 마을로 지명이 바뀌었으며 (2002년) 임금님의 진상품이었던 돗자리로 60년대 후반~80년대 말까지 전국에 유명세를 떨쳤다. 강화도 화문석도 함평돗자리도 있지만 솥골 돗자리는 아주 섬세하고 왕골결이 꼭 고루게 짜여진 완제품은 훈수품으로 유명했다.

1980년대 말부터 중국산과 대나무 자리가 나와서 점차 재배능가가 손을 놓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돗자리는 몇 장에 불과하여 아주 아쉬움이 많다. 80년대 돗자리 최상품은 5만원까지 했으며 1980년대에 쌀 한가마 48000원정도 했으니 돗자리 짜서 땅(논) 장만 했다는 말은 정말일 듯싶다.

특히나 솥골동네는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았으며 또한 미국항공우주국(나사)에 계신분도 대학교수님도, 교육장님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등 고등학교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 많았다.

이렇듯 왕골 돗자리로 부농으로 갈수 있었던 것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곳곳이 하루 많게는 2장까지 짜가며 생활했던 그분들이 계셨기에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지금은 맥이 끊겼지만 작지만 동네 박물관으로 돗자리틀과 바디, 잣대, 뜰대 등을 찾아서 남기고 싶고 마을의 작은 박물관을 만들어 전시도 하고 싶다.

지금의 나포 성산 임피 서수 4개면의 동군산농협이 있기 전까지는 마을에서 짠 돗자리의 수매형식의 판로가 되어준 조합이 있었고, 마을마다 중간 도매업자들도 있어서 좋은 상품의 판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 ■ 3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22일
- 장소 : 나포면 황일규씨 자택
- 왕골돗자리 관련 인터뷰
- 대상 : 황일규(78세, 남), 군산 27년 거주



1944년생이신 황일규님은 동네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친 후 서울 소재 대학졸업 후 군 제대 후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직장 따라 서울로 상경하여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외아들을 잃는 아픔을 경험하였다. 1997년 다시 고향을 찾아 내려왔을 땐 왕골 돗자리는 안한 상태이지만 초등학교 시절 더 왕골 심는 과정 등을 생생히 기억하고 부모님이 돗자리 짜서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다닐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셨다는 이야기와 지금은 동네노인회장님으로 일을 하시며 즐겁게 경치 좋은 곳에서 살아가시고 계신다며 옛날 임금님께 진상품이었던 솥골 왕골 돗자리에 대해 많은 경험 등을 이야기 해주셨다.

솥골은 어느 한 동네를 지칭하는게 아니라 그 근동에 많은 동네가 있었지만 돌아봄 마을이 동네도 크고 인구도 많아 솥골하면 이 동네를 말하며 다른 곳으로 결혼해도 솥골댁이라 부른다 한다. 동네 이장님을 비롯해 그 시대 돗자리 짜셨던 분과 중간도매업을 하셨던 분이 아직도 생존해계셔서 많은 정보를 들었다. 또 그 시절 고생스러웠지만 지금의 자녀분들이 든든하게 살아가는 데에는 왕골 돗자리가 한몫을 한거라고 하셨다.

## ■ 4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23일
- 장소 : 나포면 원주곡 마을
- 왕골돗자리 관련 인터뷰
- 대상 : 노인회장, 이장 외 5명



1947년 태어나 마을에 계속 거주하셨으며 현재 이장님이신 박진희님은 대대로 이곳에서 사셨던 분으로 생생하게 왕골 심는 것부터 쪼개기 마무리 단계까지 설명을 해주셨다. 파종 과정부터 마무리 단계는 거의 20여 분의 손길이 필요하며 드디어 돗자리 한 장이 나오는 과정이었다.



돗자리 이야기가 나오자 끝이 없는 그때 그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배가 아프도록 웃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돗자리 짜는 도중 간식거리로 먹었던 아이스케끼는 입에 한번 빨아 먹고 짜개기를 하면 어느새 녹아서 뚝뚝 떨어지면 또 후딱 빨아 먹고 이렇게 아이스케끼 하나 먹을 쉴 틈 없이 일을 했다고 한다.

해가 떠서 뜨거운 오후까지 하면 '기미'가 빨갈게 생기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작업을 했다. 오후 1시~2시까지 마무리를 해서 말려야 했기 때문에 손들이 빨라야 하며 점심은 왕골 짜개기를 마친 후 뚝뚝뚝 설은 호박 된장찌개에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한다.(지금 생각해보니 짜골이 원조인 듯 싶다)

• 질문1. 돗자리 재료인 왕골은 어떻게 재배하는지?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순에 파종하여 8월 초순에 베어서 생산비는 거의 들지 않고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특히 논에서 벤 왕골은 잘 잘라서 집으로 운반하여 온 가족 등 동네분과 품앗이로 겹질을 벗기고 햇볕에 말렸다가 농사일이 끝나면 농한기를 이용하여 돗자리 짜기를 시작 한다. 부부간의 2인 1조가 되어 하루에 1장 정도 무난히 짜고 잘 숙달 된 사람은 하루에 2장도 짜낼 수 있다

• 질문2. 왕골 언제부터 짜셨는지요?

보통 20여년 짜셨다고 하시며 판매는 마을마다 중간도매업자가 있어서 판로에는 걱정이 없었으며 그 후 돗자리 조합이 생겨 지금은 벼수매처럼 조합에서 사갔다.

• 질문3. 돗자리의 가격은 얼마였는지요?

80년대 돗자리 최상품이 5만원에서 중간 중간 색을 넣은 돗자리가 9~10만원 정도 했으니 가격면에서도 짬짬 했다. 속대를 말려서 손으로 만든 방식과 제일 작은 돗자리를 잘라 만든 베개를 여름에 베고 자면 땀도 흡수가 잘되고 머리가 시원하다.

## ■ 5차 활동

- 일시 : 2022년 9월 23일
- 장소 : 나포면 원주곡마을
- 왕골돗자리 관련 인터뷰
- 대상 : 주은옥(77세, 여), 군산 57년 거주

1945년 김제 만경에서 태어나 21살 (윗상골)에 결혼하였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오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어서 왕골 심을 땅도 없어서 남의 논을 얻어서 왕골 심고 돗자리를 짰다.

1남 1녀를 모두 결혼시키고 땅(논도)도 사고 집도 짓고 고생했어도 지금은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왕골로 부자 됐어 하시며 아주 좋다고 하셨다.

주은순 어르신은 친정도 시댁도 너무 어려운 형편에 이 마을에 결혼 후 거주하면서 아이도 낳고도 청얼대는 아이를 달래가며 부지런히 1년 내내 쉴 틈 없이 열심히 살아가며 돗자리로 인해 땅덩어리 (논)도 장만하고 집도 새로 지었다면서, 부부가 밤낮으로 고생 결과 지금은 그 시절 이야기하면서 잘살게 된 것을 생각하면 즐겁고 돗자리 짜는 과정이 힘들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있기에 아픈 곳도 있다면서 그래도 좋은 때라 기억하신다.

## ■ 6차 활동

- 일시 : 2022년 11월 22일
- 장소 : 전라남도 함평군 정일만씨 자택
- 왕골돗자리 관련 인터뷰
- 대상 : 정일만(69세, 여), 군산 50년 거주



왕골돗자리 기계들

왕골종자

왕골을 베어낸 후 밭

겨울비가 내리는 22일 함평을 찾아 왕골 심은 곳, 기계식으로 짜는 것 등을 보고 들으려고 함평에 갔다. 돗자리는 전국적으로 김천, 함평, 숯골을 꼽았으며 지금은 유일하게 함평에서 한 집만 재배하며 옛날 방식이 아닌 기계로 짜고 있다. 함평 국화축제 혹은 방송에서 나오면 촬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수요가 공급에 따르지 못해 기계들로 왕골돗자리를 많이 짰다. 숯골마을에도 기계로 돗자리를 짰지만 지금 그 기계가 없어졌다.

왕골을 곱게 물들여서 짜기도 하였는데 한여름 땀이 나면 물빠짐이 있어 얼굴이며 등이 빨갈게 파랗게 물이 들기도 했다.

## ■ 왕골돗자리 도구와 작업 과정



왕골돗자리 창고

왕골이 자란 모습

왕골 속과 겹질 분리 작업



돗자리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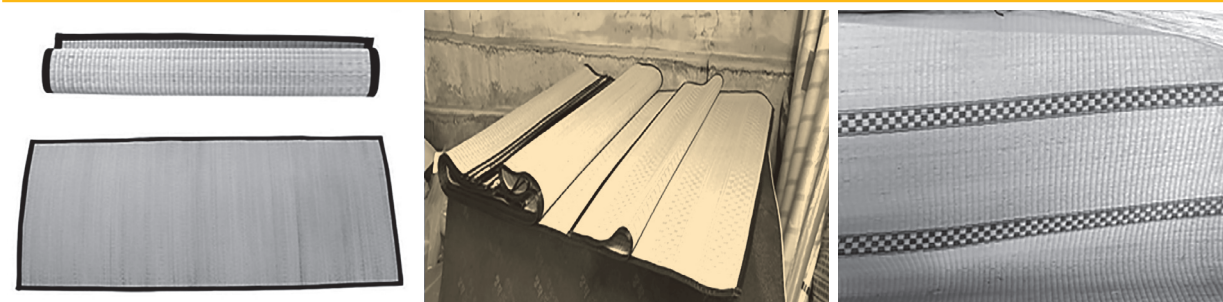
바디

돗자리 마무리 작업



왕골 껍질로 만든 생활용품

또아리와 호리병



왕골 돗자리



# 2022 Gunsan City Culture

## III. 군산의 생태 문화 추적 활동

1 대야 구불길

2 개야도 역사문화

# 1. 대야 구불길

## 개요

조사자	최정민 · 김순오	
조사 동기 · 목적	• 대야면의 풍경과 기억을 공유 • 운심사, 광법사의 절 이야기와 사람들 이야기 조사 • 편백나무 숲 가는 길 지도 제작과 활용	
활동 개요	컨설팅 받기	•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 • 문정현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 • 문정현 전문위원과 전화상담
	편백나무숲 지도만들기	• 일시 : 11월 26일 • 활동 : 지도 만들기
	현장 조사	• 일시 : 8월 29일, 31일, 10월 04일, 11월 27일 • 활동 : 대야의 편백숲과 서천의 치유숲을 비교, 대조하기
	인터뷰 활동	• 일시 : 9월 3일, 24일, 28일, 10월 03일, 13일 • 활동 : 마을 주민 인터뷰
	문헌자료 조사	• 일시: 8월 30일 ~ 10월 14일 • 시립도서관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 일시 : 8월 23일 ~ 12월 07일 • 활동보고서, 워크샵, 중간성과공유회, 최종성과공유회
	워크샵에서 발표	• 중간 발표 (10월 20일) • 최종 발표 (12월 09일)

## 활동 과정

### ■ 1차 활동

- 일시 : 2022년 8월 26일
- 장소 : 사단법인 아리울역사문화
- 대야면 조사 범위 정하기
- 인터뷰 방법, 보고서 작성 등 조사 방법
- 대야면의 협조를 받아 조사 진행



### ■ 2차 활동

- 일시 : 2022년 8월 29일
- 장소 : 운심사 일원

### 운심사

군산시 대야면 백산 남쪽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운심사(雲深寺)는 한국 불교 태고종 사찰로 1919년 이종선이 창건하였다. 운심사는 시멘트 초석 위에 자연 주초로 되어있으며, 대웅전은 앞면 3칸, 옆면 2칸으로 자연 주초 위에 두리 기둥이고 주심포 형식의 조그마한 팔작지붕으로 건축되었다.

운심사 내부에는 중앙에 석가여래상과 미륵보살, 관음보살이 봉안되어 있다. 불화로는 후불탱을 비롯해 산신탱, 신중탱, 칠성탱, 지장탱 등이 있다. 묘사체는 원래 이 절의 중심에 있던 법당이였다.

대웅전 앞에는 1989년에 조성된 석조 미륵 불상(石造彌勒佛像)이 봉안되어 있다. 입상(立像)인 석조 미륵 불상은 양련 대좌 위에 세워져 있는데, 불상의 높이가 19척이나 된다. 대웅전의 작은 규모와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거대하지만, 얼굴은 작고 귀염성이 있다. 용왕상(龍王像)은 2000년 10월 26일 세운 것으로 대웅전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운심사의 부도는 언제 어디서 옮겨졌는지 알 수 없으나 이곳이 예전에 절터였던 흔적을 말해주고 있다. 기단주는 절실되었고 작은 보주와 탑신석은 일석이다. 원구형에 가까운 조선후기의 부도이다. 운심사 부도 현재는 미륵불 앞쪽에 옮겨져있다.

### 오동무학

산월리 오동마을은 예부터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서 사는 선비들이 사는 처사촌으로 유명했다. 오동마을 좌우편에는 광법사와 운심사가 있어 “절골”이라고 했다. 이 광법사와 운심사에 출입하는 승려들이 승복을 입고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학이 무리를 지어 춤을 추는 듯해서 오동무학 이라고 했다. 먼 속에서도 그 특징을 꿰뚫어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직관력이 놀랍다.



도척온수

운심사에서 광법사 가는길 중간 즈음 승려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철봉제가 있다. 겨울철 삭풍이 휘몰아칠 때 노승과 상좌가 절을 찾아가다가 물이 솟아올라오는 것을 보고 노승이 버선을 벗고 물에 덤벼 발을 담그자 깜짝 놀라며 “아니, 스님 이러시면 감기 드시웁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노승은 저수지 표면에서 김이 나는 것을 보고 온수가 나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름까지 지어 주었다. 온수가 흘러서 한끝은 철봉제에 고이고 한끝은 도척골 농사지를 물로 이용되었는데 그 모양이 잣대를 거꾸로 세운 것 같다고 해서 ‘도척온수’라 했다고 한다. 자연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모습까지도 아름답게 본 것이다.

- 철봉제(철봉저수지)
  -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1945년에 설치
  - 제원 : 제당길이 157m, 높이 3.5m
  - 총저수량 : 58,700m³
  - 만수/몽리면적 : 2.3ha / 22.2ha
- 군산시청 → 운심사거리 : 7.1km, 도보 1시간 45분, 자전거 26분



3차 활동

- 일시 : 2022년 8월 31일
- 장소 : 광법사 일원



- 광법사
  - 한국 불교 태고종 사찰
  - 1920년 송암 대선사 창건, 1963년 확장
- 광법사 가는 길
  - 대야면 산월리 명성아파트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
  - 개정면 통사리 개정 문화마을 입구에서 오른쪽 길
  - 개정면 통사리 개정 문화마을 뒤편으로 들어가는 길
  - 운심사를 지나 철봉제를 끼고 돌아가는 길
- 독립 만세장
  - 임시정부 군옥지구 총변 노춘만, 강문주, 최공훈 등 만세운동 지도자와 군자금을 모집했던 항일투쟁의 중심지
  - 6.25 전쟁 때 우익 인사들의 은둔처
  - 대야팔경 중 한 곳
- 군산시청 → 광법사 : 6.4km, 도보 1시간 35분, 자전거 23분

4차 활동

- 일시 : 2022년 10월 4일
- 장소 : 대야면 산월리 편백나무숲



- 약 2ha의 공간에 2,000여 그루의 편백나무를 수목
- 주변에 5종의 운동시설과 등나무 의자 등 편의시설을 조성
- 대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산책로 주변을 꾸준히 정비
- 등산코스뿐 아니라 간단한 운동장소로 적절하여 시민들이 이용
- 30여년 전부터 조성되었지만 사유지로 인한 관리 감독의 어려움 발생
- 대야면은 협의를 통해 산책로 정비 예정
- 편백나무숲 이용 시민 인터뷰



• 대상 : 이혜숙(46세, 여), 군산 거주기간 20년

- 질문1. 편백나무숲은 왜 오게 되는가?  
산책하다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 조용하고 공기도 맑아 계속 오게 됨
- 질문2. 편백나무숲은 주로 누구랑 언제 찾게 되는가?  
남편과 휴무일에 운동 겸 오게 됨
- 질문3. 편백나무숲에 오면 주로 무엇을 하는가?  
운동기구에서 몸도 풀고 의자에 누워 하늘 바라보며 가끔 김밥도 먹고 쉼
- 질문4. 편백나무숲의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누워서 쉬는 의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 질문5. 편백나무숲의 관계자나 편백나무숲에 대한 바램이 있는가?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리 및 화장실 필요

• 대상 : 한영수(67세, 남), 군산 거주기간 67년

- 질문1. 편백나무숲은 왜 오게 되는가?  
운동, 휴식
- 질문2. 편백나무숲은 주로 누구랑 언제 찾게 되는가?  
친구, 가족
- 질문3. 편백나무숲에 오면 주로 무엇을 하는가?  
운동하고 쉬었다감
- 질문4. 편백나무숲의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화장실, 에어컨프레사 설치, 등산로 제초작업

■ 5차 활동

- 일시 : 2022년 11월 26일
- 장소 : 대야면 산월리 편백나무숲
- 편백나무숲 지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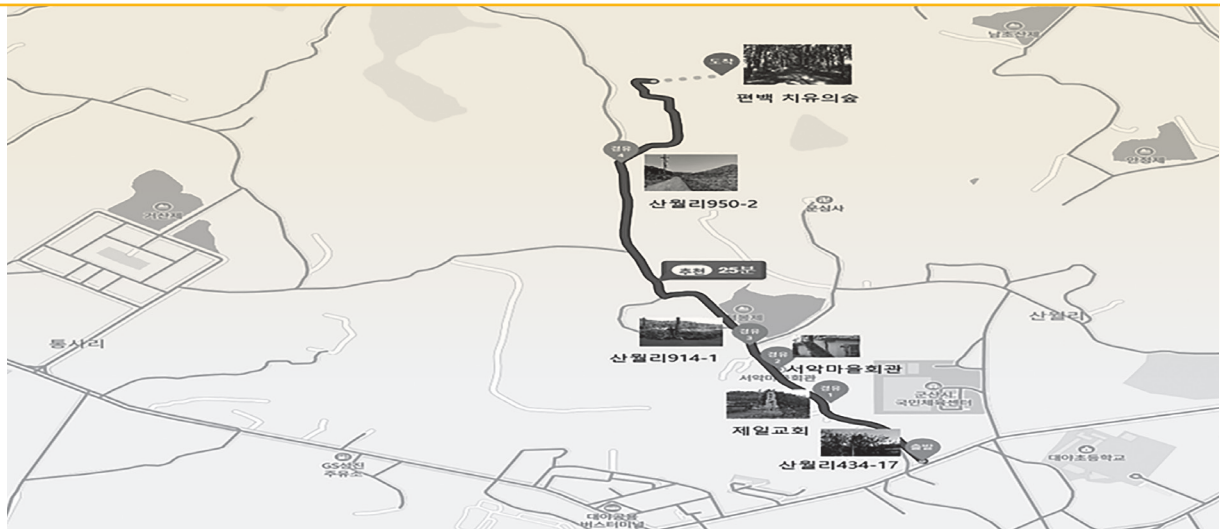
개정문화마을 → 광법사 → 편백나무숲



광법사 → 편백나무숲 → 철봉제 → 운심사



명성파크맨션 → 철봉제 → 편백나무숲



제일교회 → 서악마을회관 → 편백나무숲





- 6차 활동
- 일시 : 2022년 11월 27일
  - 장소 : 대야면 산월리 편백나무숲
  - 편백나무숲의 문제
    - 화장실이 없음
    - 손을 씻을 곳이나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없음
    - 휴먼지 털이기가 없음
    - 등산로의 꾸준한 제조작업이 필요
    - 편백나무숲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어려움
    -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 편백나무숲의 평상이나 등반이 의사 관리가 필요

## 2. 개야도의 역사와 문화

### 개요

조사자	송효선 · 소병주												
조사 동기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우리 고장 옥도면에 위치한 개야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li><li>• 섬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섬과 관련된 관계자분의 인터뷰 조사, 문헌조사를 통해 개야도의 주요 어종이나 특산물, 자연경관 등 개야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정리</li><li>• 결과물을 남겨 개야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탐방 정보 제공 및 미래 세대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li></ul>												
활동 개요	<table><tr><td>컨설팅 받기</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li><li>• 문정현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li><li>• 문정현 전문위원과 전화상담</li></ul></td></tr><tr><td>비안도 방문</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 8월 23일, 9월 3일, 24일, 28일, 10월 3일, 13일</li><li>• 활동 : 옥도면 면사무소 방문, 섬의 날 행사장 방문, 당산 현장조사, 용왕맞이길 현지 답사, 개야도 마을(통개, 잭배기, 거른재, 풍여, 산골, 담밀, 아래문디, 고랑물), 개야도 해수욕장, 포켓비치 답사, 주벽(독살)현지 답사</li></ul></td></tr><tr><td>인터뷰 활동</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 9월 3일, 24일, 28일, 10월 03일, 13일</li><li>• 활동 : 마을 주민 인터뷰</li></ul></td></tr><tr><td>문헌자료 조사</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 8월 30일 ~ 10월 14일</li><li>• 조사 문헌 사이트 : 지역N 문화, 디지털군산문화대전 향토백과</li></ul></td></tr><tr><td>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 8월 23일 ~ 12월 07일</li><li>• 활동보고서, 워크샵, 중간성과공유회, 최종성과공유회</li></ul></td></tr><tr><td>워크샵에서 발표</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간 발표 (10월 20일)</li><li>• 최종 발표 (12월 09일)</li></ul></td></tr></table>	컨설팅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li><li>• 문정현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li><li>• 문정현 전문위원과 전화상담</li></ul>	비안도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 8월 23일, 9월 3일, 24일, 28일, 10월 3일, 13일</li><li>• 활동 : 옥도면 면사무소 방문, 섬의 날 행사장 방문, 당산 현장조사, 용왕맞이길 현지 답사, 개야도 마을(통개, 잭배기, 거른재, 풍여, 산골, 담밀, 아래문디, 고랑물), 개야도 해수욕장, 포켓비치 답사, 주벽(독살)현지 답사</li></ul>	인터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 9월 3일, 24일, 28일, 10월 03일, 13일</li><li>• 활동 : 마을 주민 인터뷰</li></ul>	문헌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 8월 30일 ~ 10월 14일</li><li>• 조사 문헌 사이트 : 지역N 문화, 디지털군산문화대전 향토백과</li></ul>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 8월 23일 ~ 12월 07일</li><li>• 활동보고서, 워크샵, 중간성과공유회, 최종성과공유회</li></ul>	워크샵에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간 발표 (10월 20일)</li><li>• 최종 발표 (12월 09일)</li></ul>
컨설팅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li><li>• 문정현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li><li>• 문정현 전문위원과 전화상담</li></ul>												
비안도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 8월 23일, 9월 3일, 24일, 28일, 10월 3일, 13일</li><li>• 활동 : 옥도면 면사무소 방문, 섬의 날 행사장 방문, 당산 현장조사, 용왕맞이길 현지 답사, 개야도 마을(통개, 잭배기, 거른재, 풍여, 산골, 담밀, 아래문디, 고랑물), 개야도 해수욕장, 포켓비치 답사, 주벽(독살)현지 답사</li></ul>												
인터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 9월 3일, 24일, 28일, 10월 03일, 13일</li><li>• 활동 : 마을 주민 인터뷰</li></ul>												
문헌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 8월 30일 ~ 10월 14일</li><li>• 조사 문헌 사이트 : 지역N 문화, 디지털군산문화대전 향토백과</li></ul>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 8월 23일 ~ 12월 07일</li><li>• 활동보고서, 워크샵, 중간성과공유회, 최종성과공유회</li></ul>												
워크샵에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간 발표 (10월 20일)</li><li>• 최종 발표 (12월 09일)</li></ul>												

### 활동 과정

#### ■ 개야도의 역사와 문화 조사 과정

섬에 들어오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섬! 우리 동네 옥도면에 위치한 개야도의 문화를 알고자 동네문화추적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 대한 조사활동은 여지도서, 지역N 문화, 디지털군산문화대전, 백과사전 등에서의 자료조사와 개야도 현지답사를 통한 현장조사, 개야도 주민들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였다. 개야도를 추적한 내용들은 개야도, 개야도사람들, 개야도 둘러보기, 개야도 문화 추적 후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개야도(開也島)

개야도는 고군산군도의 한 섬으로 군산항에서 12해리(약 22km) 지점에 있는 섬으로 동경 126°33' 북위 36° 2' 에 위치한다. 면적은 2.17km<sup>2</sup>이고, 해안선 길이는 6km이다. 인구는 356세대, 618명(남350명, 여268명, 2022년 8월 23일 옥도면사무소 등록기준)이다.

이 섬은 개야소도(開也召島)라 하여 조선시대에는 충청남도 서천군에 속하였으나 1914년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에 편입되었다가 1995년 군산시와 옥구군의 통합으로 군산시에 속하게 되었다.

섬의 지형이 높은 봉우리가 없고, 낮은 구릉들이 마치 이끼가 핀 모습과 같다고 하여 개야도라 했다고 한다. 또한 누구나 이 섬에 들어와 살면 잘살아 개야도라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은 더 잘사는 섬이라고 한다. 개야도는 논과 밭이 넓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어패류가 많아 호미 하나만 가지고도 바지락이나 굴 등을 잠깐 캐어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이기에 부지런만하면 누구나 잘살 수 있다고 한다.

개야도는 옥도면에 속한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섬으로 마을은 1구(394명)와 2구(224명)로 나뉘고 있다. 동쪽 바닷가 마을(통개, 잽배기, 거른재, 풍여)들이 1구이고, 농지가 많은 곳 2구 마을(산골, 당밀, 아래문디, 고랑물)이다. 예전에는 농지가 많은 2구가 변화가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농사보다는 어업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기에 1구 동쪽바닷가 마을 중심지이고 인구 수도 더 많다.

마을 지명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가장 중앙에 있고 땅이 거르고 변화한 마을 거른재, 맨 위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잽배기, 당산 밑에 있다하여 당밀, 산 위에 있는 굴이라는 뜻의 산골마을, 이 마을의 우물은 개야도 사람들이 막걸리를 담글 정도로 우물의 물맛이 좋았다고 한다. 바람맞은 돌이라는 의미의 풍여, 물고랑이 있어 고랑물, 맨 아래에 있다하여 아래문디라 했다 한다. 참으로 기억하기 쉽고 정감 있는 마을 이름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마을동쪽에는 큰 규모의 간석지가 형성되어 있고, 북서쪽에는 크고 작은 포켓모양의 해안과 개야해수욕장 등을 볼 수 있으며 섬의 남쪽으로는 용왕맞이 바위로 이어지는 길을 볼 수 있다.



개야도의 지리적 위치

이끼가 핀 모습의 대야도

## ■ 개야도 사람들

섬에 가려면 군산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50분정도 가면 된다. 배는 오전에 1회, 오후에 1회 운행되고 있다.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 가끔은 배시간이 30분이나 1시간정도 앞당겨지기도 하고 뒤로 밀려 운행되기도 한다. 그래서 개야도에 가기 위해서는 배의 운항시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개야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500년 전 수원에서 벼슬하다 유배 온 김씨가 정착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한다.

그 후손들이 지금도 23대손에 걸쳐 살고 있어 한때는 김씨가 많은 편이었으나 지금은 박씨, 강씨, 정씨 등 다양한 성씨들이 살고 있다.

교육시설로 개야도 초등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원래 마을 근처에 있었던 것을 해변가로 옮긴 것이라고 한다. 학급 학생 수가 많았을 때에는 40~50명 정도였고, 운동회 때에는 개야도 섬 주민들이 참여하는 동네잔치로 했었지만, 지금은 학생 수가 줄어 2명의 학생만이 다니고 있다.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폐교될지도 모르겠다.

이 밖에 수산업협동조합 개야 출장소를 비롯하여 개야도 파출소, 해양경찰, 보건지소, 개야도교회, 발전소 등의 시설들이 있다.

개야도에는 김, 멸치, 젓갈(바지락젓, 굴젓) 등의 특산품이 있고 2구 마을에서 재배되는 고구마가 있는데 해풍을 맞아선지 섬 고구마가 맛이 있다고 한다. 이외에 콩, 깨 등을 비롯하여 배추농사도 하고 있었는데 배추는 절여서 팔기도 한다. 주민들이 소유한 배는 600~700척 정도로 배가 많은 섬이지만, 많은 배에 비해 항 즉, 포구가 적어 배를 정박시키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개야도는 다른 섬에 비해 젊은 층도 있고, 외지로 나갔던 젊은이들도 섬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일손은 부족하다고 한다. 부족한 일손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고, 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출신들이 대부분으로 보통 약 300만원 전후의 임금을 주고 있었다. 특히 해태(김)양식을 할 때에는 한 집에서 많게는 8명 적게는 4명 정도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이런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약 150~200명 정도 되지만 인력난이 심해 최근에는 사업을 포기하는 어가도 더러 있다고 한다.



여객터미널      개야도 여객선      개야도마을      개야도마을      개야도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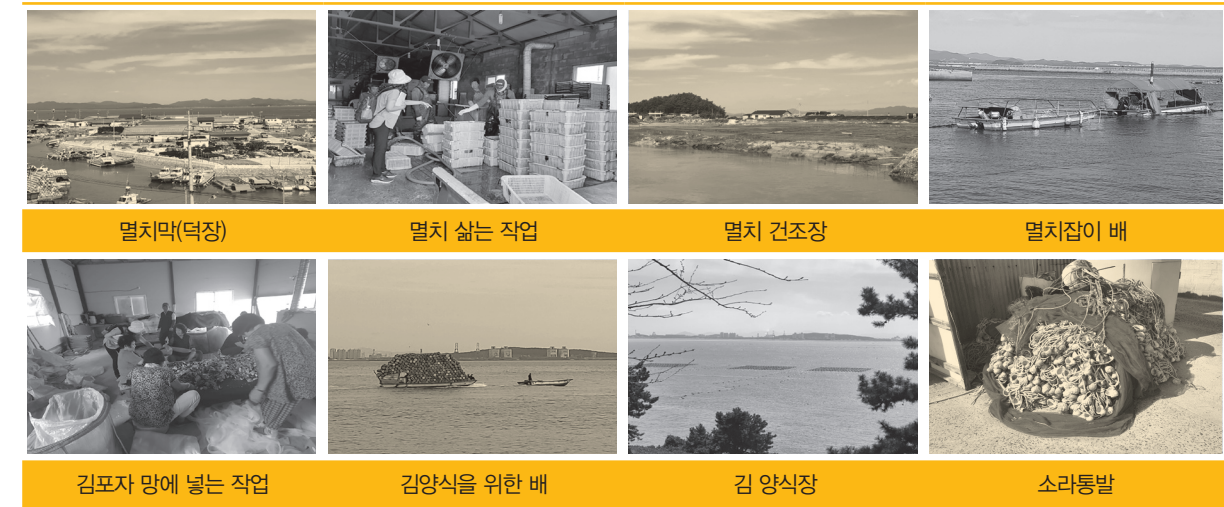
섬 주민들의 배      바지락 채취장소      젓갈(멸치,바지락 등)      외국인 근로자 어업 활동

개야도에서는 2월 중 하순부터 4월초까지 쭈꾸미를 잡는데 쭈꾸미는 소라껍질을 이용하여 잡기 때문에 썰이 없어 깨끗하다. 4월말엔 광어가 제철인데 광어 값이 이때가 가장 싸고 자연산이라 살이 쫄깃하고 맛도 있다고 한다. 5월 갑오징어를 비롯하여 4월부터 6월까지의 꽃게잡이의 어업활동을 한다. 이때의 꽃게는 알과 살이 꽉차있어 실하다고 한다. 4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멸치잡이를 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어획한 멸치는 봄 멸치라고 하고 그 이후의 멸치는 가을 멸치라 한다. 봄 멸치는 보관이 쉽지 않아 색깔이 변하고 썩내가 날 수 있고, 오랫동안 보관이 어려워 주로 젓갈용이나 국물멸치용으로 이용된다. 가을멸치는 오래 보관해도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두고 먹을 수 있어 봄 멸치에 비해 값도 비싸다고 한다. 잡은 멸치는 큰 솥에 삶아 말리는데 요즘에는 잡은 멸치를 바로 배에서 삶아 배에서 건조시키기도 한다고 한다.

9월 중하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김 양식을 하고 있고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는 폐각에 김포자를 붙여 망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밖에 해삼과 낙지를 비롯하여 바지락 및 굴 채취와 우럭, 도미, 부시, 농어, 쭈꾸미, 문어 등을 낚을 수 있다고 한다.





■ 개야도 해수욕장

초등학교 뒤쪽 해안에 있으며 자연그대로의 해변으로 바람에 부딪히는 파도소리와 바다 경치는 푸르른 가을 하늘과 함께 한 폭의 수채화 같았다. 이 곳엔 고운모래와 돌들이 있었다. 밀물 때는 수영도 할 수 있고 썰물 때는 소라나 조개 등 어패류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근처에는 할미섬이라 불리는 섬이 있는데 왜 할미섬이라 했는지는 주민들도 모른다고 했다. 아마도 할미와 얽힌 특별한 사연이 있어 할미섬이라 했을거라 생각해 본다.



■ 포켓비치

해수욕장에서 남서쪽으로 길을 따라가면 크고 작은 포켓모양의 장골해변, 싸수건 등의 해안을 볼 수 있다. 포켓비치란 두 돌출부 사이의 만입에 초승달 모양으로 발달해 있는 사빈을 말하는데, 오랜 세월 파도에 의한 침식과 퇴적작용 등에 의해 만들어진 그 경관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포켓비치 끝부분에서 데크 길을 따라 가면 전망대가 있다. 전망대로 오르니 해태양식장과 죽도, 군산의 풍력발전기도 보였다.



■ 개야 습지

통개마을 부근에 일제강점기에 독을 쌓아 간척지를 만든 곳으로 예전에는 이곳을 일구어 논농사와 밭농사를 하였지만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농사를 하지 않아 갈대와 잡초가 우거진 습지로 방치되어 있어 아쉬움만 가득했다.



■ 주벽(독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함정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는 전통방법이다. 돌을 쌓아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를 썰물 때 잡는 방법으로 함정 속에 물고기가 많아 발로 물고기를 밟고 다닐 정도로 바글 바글했다고 한다. 3군데 정도의 주벽 흔적이 남아 있고, 요즘은 이런 전통방식으로는 어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 당산과 용왕맞이길 거리제

선착장에서 서쪽으로 가면 당산에 있는 당집(제각)을 볼 수 있다. 이 당집은 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이며, 3년전에 보수공사한 것이라 한다. 당집에서는 정월 대보름날이면 어민들의 무사고와 만선을 기원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어민들은 각자의 어선깃발을 들고 당산에 올라 당주를 중심으로 제를 지낸 다음 당주가 주는 음식을 백지에 싸서 용왕님께 바치는데 이를 뱃고사라 하며, 용왕님께 음식을 바치는 장소를 용왕맞이 길이라고 한다. 또한 정월 대보름날에는 거리제 행사도 있는데 이는 팽과리, 징, 장구 등 풍물을 치며 집집마다 방문하여 액운을 물리치는 마을 행사라고 한다. 이런 마을행사는 지금도 하고 있었다.





당산 오르는 길

당산제 지내는 곳

용왕맞이 길 가는 데크

용왕맞이 길

## ■ 봉수, 고분떼, 유물산포지, 조개더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개야도 봉수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봉수(봉화)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파악은 어렵고, 개야도를 비롯한 고군산군도가 고려시대에 항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안전한 뱃길을 위해 봉수가 만들어졌을 것이란 설명을 해주셨다. 아마도 봉수가 뱃길을 안내했던 등대역할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디지털군산문화대전에 의하면 개야제 남쪽 기슭에는 고분떼가 있었다는 기록과, 개야초등학교주변 구릉지 등의 유물산포지에서는 고려시대 토기, 자기조각 등과 마제석검조각, 석촉조각 등이 수습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북서쪽 동서방향으로 뻗은 구릉 부근에서 신석기시대의 조개더미가 확인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이런 유물들은 개야도의 역사와 문화가 선사시대부터 고려를 거쳐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래서 이곳을 찾아가보니 찾을 수도 없었고 마을주민들도 모른다고 하였다. 안내표지라도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길 수 밖에 없었다.



수몰사이로 확인되는 석축

봉수주변 경작지에서 발견된 유물

구릉에서 바라본 죽도와 연도전경

## ■ 기타

일제강점기까지는 동쪽 저습지에서 염전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고, 소금은 육지에서 조달해 사용하고 있었다. 죽도 해상에서 열렸던 생선시장인 파시도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고 한다. 뱃노래 등의 민요에 대해 마을 주민들께 여쭙어 보니 뱃노래에 대해선 잘모르겠다며 요즘에는 최근의 음악을 들으며 어업활동을 한다고 한다.

## ■ 개야도의 역사와 문화 활동 후기

옥도면에 속한 섬 중에 가장 큰 섬인 개야도는 관광섬이라기 보다는 순수한 어촌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마을 분들은 김 양식을 위한 준비작업과 멸치잡이, 꽃게잡이 등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크고 작은 배들은 수시로 포구에 정박했다가 다시 바다로 향하였다. 개야도는 어민들의 부지런함과 생동감이 넘치는 어촌이었고, 해수욕장과 포켓 비치 등의 주변 경관도 아름다웠다. 그런데 안내도와 이정표의 부재, 개야해수욕장과 포켓비치의 해양쓰레기, 여기저기 버려진 폐어자재, 잡풀로 우거진 데크 길 등의 정화활동이 필요해 보였다. 이밖에 당산, 용왕맞이길, 간석지, 주벽(독살), 봉수, 개야습지 등의 자연과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활용하여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섬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이러한 개야도의 문화추적 활동이 개야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매력들을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개야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문화추적활동을 통해 모은 고군산 섬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 하나 모아서 묶음(소책자)으로 만들어 볼까하는 욕심도 생겼다.



## 2022 하반기 동네문화추적단

---

총괄편집 군산문화도시센터

발행처 군산문화도시센터 · 군산시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주소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45, 옥산힐빙센터 3층

연락처 063.468.0931~2

홈페이지 <https://www.kunsan.ac.kr/gunsanccc>

I S B N 979-11-979687-3-0

---